

2일 Market Index	
코스피 7648.09 (-655.32)	코스닥 866.72 (-62.63)
금리 (연고래 3년) 3.747 (-0.044)	환율 (환/달러) 1551.25 (-3.62)

metro® 경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천무 발판
우주방산 키운다
0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뒷줄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박훈근 기획처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이철 삼성디스플레이 대표, 박수현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환 충북지사. /뉴스

“삼성 HBM생산 결단, 충청 위상 강화”

충청권에 392조 투자
이재명 대통령, 국민보고회
삼전 140조, 하닉 100조 등
“기업들의 결정 빛 발하게
정부가 지원·성공시킬 것”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이 충청 지역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부품, 바이오 등의 분야에 약 39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 140조원을 비롯해 SK가 100조원, 셀트리온이 2조원 가량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그의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에 약 1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가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지방위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제2캠퍼스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할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향해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교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며 격려했다. 이재용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반도체 지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분산, 지방 중심 성장 전략”이라며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입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지역에 가장 효율이 높은 방법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권의 산업 위상을 부각하며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민국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그리고 이러한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권역 안에 모여

서 강력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충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삼성의 HBM(고대역폭메모리)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삼성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HBM 생산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충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이러한 결정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3면에 계속>
/사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AI시대 성공적 노후 위한 자산전략

최근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생 자산관리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00세 플러스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오는 7월 9일(목요일)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AI 시대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상속, 증여 전략, 부동산, 금융자산, 대체투자 및 미래투자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2)
- ◆ 주 제 :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 ◆ 일 시 : 7월 9일(목)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1시40분~2시)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 의 :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삼성 계열사, 성과급 논의 도미노

삼성전기 이어 DP·SDI 등
성과급 제도개선 논의 확산

삼성전기가 삼성 계열사 중 처음으로 초과이익성과급(OPI) 제원을 영업이익의 10%로 확정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등 주요 계열사로 성과급 제도 개선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역대 최고 실적 달성 시 별도 보상하는 이른바 ‘최고실적 동기부여 프로그램’ 도입을 놓고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OPI는 유지하되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을 때 추가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아직 재원 산정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협의 초기 단계다.

이와 별도로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기에 이어 장기 성과 연동 보상제인 성과연동주식보상(PSU)을 올해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장사인 삼성디스플레이는 자사주가 없는 만큼 삼성전자 주식 가치와 자체 영업이익에 연동해 산정한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2022년 역대 최고 실적에도 별도

특별보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지난 3월 성과 연동 보상제 도입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계열사 성과급 개편의 신호탄은 삼성전기가 쏘아 올렸다. 삼성전기는 지난달 18~30일 진행된 임직원 투표에서 참여자의 97.1%가 찬성함에 따라 계열사 최초로 OPI 재원을 기존 경제적부가치(EVA)의 20%에서 영업이익의 10%로 변경했다.

올해 전사 연결 기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내년 1월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며 개인별 상한은 연봉의 50%로 유지된다. 증권가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약 1조 5000억원을 적용하면 성과급 재원은 15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지난해 1조 7224억원의 영업손실로 OPI 지급률이 0%였던 삼성SDI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앞서 삼성전자가 적자를 낸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에도 최소 1억 6000만원 수준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기로 한 사례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면에 계속>
/구녕 기자 koojia_lee@



코스피, 7600선까지 주저 앓아 ‘검은 목요일’

7.89% 하락한 7648.09 마감
삼전 9%, 하이닉스 14% ‘뚝’
하루만에 시총 400조 이상 증발

2일 코스피가 ‘8천피’에서 밀려나 7600선으로 주저 앓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9%, 14% 넘게 하락했다.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에 따른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를 침몰시켰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55.32포인트(7.89%) 떨어진 7648.09로 마감했다. 외국인도 4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이 6조 2500억원 어치를 사들였지만, 하락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62.63포인트(6.74%) 내린 866.72

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선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연달아 발동됐다. 코스피 매도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낮추는 장치다. 코스피 200선물이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투자심리 악화로 이날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400조원 이상 증발했다. 9.06% 급락한 삼성전자는 30만원이 무너졌다. 외국인은 7월 들어 이틀동안 삼성전자를 1조 7000억원 가까이 매도했다. 이날 종가는 28만 6000원. SK하이닉스는 14.57% 하락해 218만 7000원까지 밀려났다.

이날 하락의 방아쇠는 메타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메타가 내부

적으로 ‘메타 컴퓨트’ 계획을 출범해 자사의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클라우드 사업 모델을 구상 중이라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은 AI 연산 자원이 공급 과잉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번지면서 그간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인프라 종목에 충격을 줬다. 메모리 반도체 3대장으로 꼽히는 미국 마이크론은 전일 10.57% 폭락했다. 샌디스크(-10.62%), AMD(-6.89%), 인텔(-9.03%) 등 AI 반도체 기업도 일제히 하락했다.

그 영향으로 대만 자취안지수(-0.58%)와 일본 닛케이255평균주가(-2.47%) 등 아시아 증시도 파랗게 질렸다. 시장에서는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인 마이클 버리의 가벼운 입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미 CNBC 등에 따르면 버리는 지난 29일 발표된 한국 메모리 업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두고 “오늘 릴리의 직접적인 계기는 한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투자 계획”이라며 “하지만 나는 이것이 끝의 시작(beginning of the end)”이라고 했다.

미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3시 기준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63.2%였다. 1개월 전 예측(20.5%)보다 42.7% 포인트 뛰었다.

/신하은 기자 godhe@



메트로 한줄뉴스



▲ 6일부터 외환시장 24시간 체제...환율 변동성 완화 기대
▲ 대통령 국정 지지율 58%...민주당 42%·국민의힘 20%
/사진 뉴스스

▲ 육군 “포천 예비군훈련 사망은 지병 탓...의무 지원체계 강화”
▲ 배재고 논란 정치권까지 확대...“과한 조치” vs “엄중 책임”

▲ ‘캠보디아 범죄단지’ 제보자 5년6개월형...수사 협조에 일부 감형
▲ 시민단체 홍명보·정몽규 고발 “선수에겐 고통, 국민엔 모욕 줘”

6월 소비자물가 3.2%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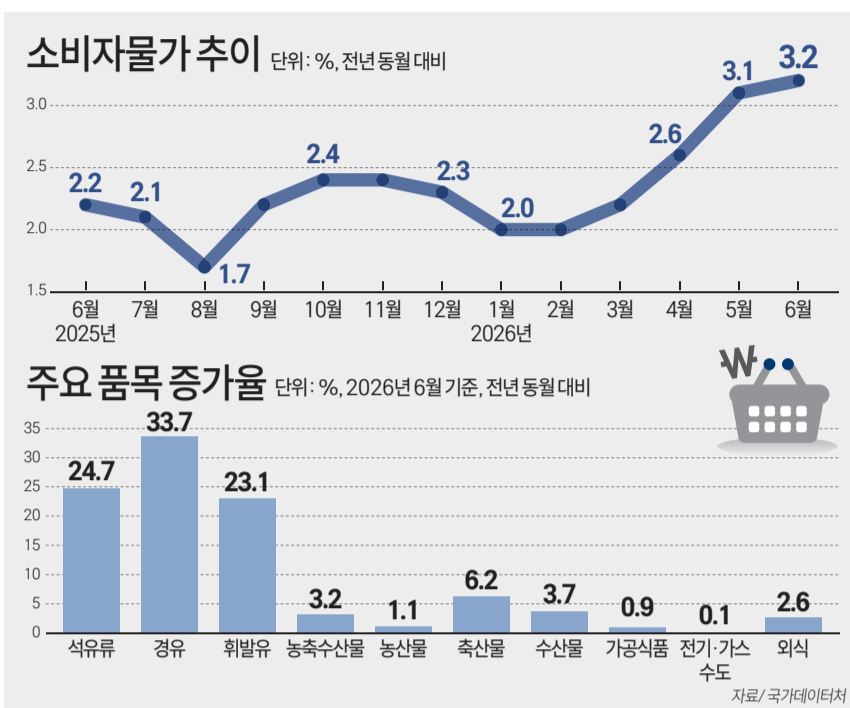
유가·환율 요동... 근원물가 고착... 금리인상 가능성 커져

전월 대비 물가 상승폭 커져
신현송 총재, 적극대응 시사
16일 금통위 회의 이목집중

6월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당장 이뤄질 지 좀 더 미뤄질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의 물가와 경기 흐름은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논의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지난 5월 금통위에서는 위원 7명 중 5명이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명은 0.25%p 인상을 주장했다. 6월 물가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만큼 인상을 확정할 새로운 충격은 아니지만, 인상 필요성을 악화하는 지표도 아니라는 평가다.

신현송 총재는 지난달 물가설명회에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월에도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24.7% 올라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농축수산물 상승률도 5월 2.2%에서 6월 3.2%로 확대됐다. 농산물 가격은 0.8% 하락에서 1.1% 상승으로 전환했고, 축산물 가격도 6.2% 올랐다.

다만 5월보다 6월 물가 상승폭이 커진 원인을 석유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 포인트(p) 높아지는 과정에서 근원상품과 농축수산물이 각각 0.07%p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서비스는 0.12%p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 석유류는 높은 기름세를 지속해 전체 물가 수준을 끌어 올렸다.

근원물가 내부에서도 흐름이 엇갈렸다. 국제항공료와 승용차 임차료 등이 낮아지면서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5월 2.8%에서 6월 2.6%로 둔화했다. 개인서비스도 3.7%에서 3.4%로 낮아졌다.

반면 내구재 가격 상승률은 2.4%에서 3.1%로 확대됐다. 서비스 가격의 오름세가 약해졌지만 상품 가격이 높아지면서 근원물가는 2.5%에서 더 내려가지 못했다.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높아진 비용이 상품 가격에 추가로 전가되는지는 향후 물가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한은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가 고점에서 하락한 데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반영될 수 있어서다.

6월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9.5달러로 5월 103.2달러보다 크게 낮아졌다. 다만 같은 기간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91원에서 1528원으로 올랐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2004.7원으로 2000원대를 유지했다.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소비자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예상된다.

한은은 비용 충격의 전이와 수요 압력 확대로 근원물가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치호 한은 부총재보는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 물가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6월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며 “향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하방압력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압력 확대가 상쇄하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경기 측면에서는 기록적인 수출 호조가 한은의 성장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다. 6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70.9% 급증한 1022억5000만달러로 사상 처음 월간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은 199.5% 늘어난 448억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세가 반도체에 집중된 만큼 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30개월새 가장 큰 오름세... 컴퓨터 가격 22% '썩춤'

중동발 석유류 가격상승 영향
공업제품·농축수산물 상승폭 커

국내 물가가 30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석유류 가격이 2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3.2% 올랐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1월과 2월 각각 2.0%에 머물다가 중동전 발발 이후 기울기가 가팔라졌다. 3월 2.2%, 4월 2.6%, 5월 3.1%에 이어 6월 3.2%까지 뛰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달걀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었다. 올해 6월 수치는 2023년 12월(3.2%) 이후 2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동발 충격의 중심에 선 석유류

의 가격이 전년동월 대비 24.7% 치솟았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35.2%) 이래로 3년11개월 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휘발유(23.1%)와 경유(33.7%), 등유(23.1%) 값이 모두 급등했다.

국내 유가가 치솟으면서 공업제품(4.4%) 물가도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른바 ‘칩플레이션’(반도체 가격 상승에 제조원가가 동반 상승하는 현상)의 영향을 받은 컴퓨터 가격이 22.2%나 뛰었다.

농축수산물 가격 역시 전체 소비자물가와 같은 수준인 3.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앞서 5월에는 2.2%였다.

특히 축산물(6.2%)과 수산물(3.7%)이 크게 올랐다. 조기 12.0%, 국산소고기 7.5%, 수입소고기 6.8%, 돼지고기 4.5% 등이다. 농산물(1.1%)과 가공식품(0.9%) 오름폭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파(37.1%)와 쌀(11.7%), 달걀(10.3%) 값은 급등했다.

서비스(2.6%) 가격도 상승했다. 공공서비스(1.6%)에 비해 개인서비스(3.4%)에서 많이 올랐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2.6%, 외식 제외 서비스는 3.9% 뛰었다. 서비스 품목 중에서는 국제항공료(28.2%), 보험서비스료(13.4%), 해외단체여행비(24.3%), 자동차수리비(5.5%) 등에서 오름폭이 컸다.

국가데이터처의 이무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는 최고가격제에 변동이 없어 4월과 5월 상승 폭이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27일에 최고가격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달(7월)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2.5% 상승했다. 3월(2.2%)과 4월(2.2%)에 2%대 초반에 머물다 5월(2.5%)부터 2%대 중반에 자리하고 있다.

가계의 구입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4%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2.3%, 식품 외 품목 가격은 4.1% 올랐다. 신선식품(0.4%)도 소폭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한화오션, ‘KDDX 설계·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르면 내달 말 최종계약 전망
해군 전력화 사업 본궤도 올라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2년 넘게 표류한 KDDX 사업이 본계약 협상 단계에 들어가면서 해군 전력화 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전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공시했다. 방사청은 지난 3월 입찰공고 이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지난달 11일 한화오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잠정 선정했으며, 약 3주 만에 최종 확정했다.

당시 양사의 점수 차는 0.5867점에 불과했다. 승패를 가른 핵심 요인은 HD현대중공업에 적용된 1.2점의 보안 감점이었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KDDX 관련 군사기밀을 촬영·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감점이 적용됐다. 이후 감점 적용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방사청이 이를 기각하면서 한화오션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최종 확정됐다.

KDDX는 7000t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해군의 핵심 방산 프로젝트다. ‘국산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차세대 함정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7조8000억원 규모다. 방사청은 상세설계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8년 말부터 후속함 5척 발주를 시작해 2036년까지 해군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통합전기추진체계와 통합마

스트 등 첨단 핵심 기술과 스마트 함정 설계 역량을 KDDX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달 중순부터 한화오션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해 이르면 오는 8월 말 최종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과 기간은 협상을 거쳐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본계약 체결 시점과 후속함 건조 물량 배분이 다음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축적된 함정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사업 정상화와 적기 전력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metro

‘영업이익 N%’ 확산... 연봉 상한 등 쟁점

▶▶ 1면 ‘삼성 계열사 성과급’서 계속

삼성SDI가 올 1분기 영업손실을 전년 동기 대비 64.2% 줄인 1556억원까지 축소하고 하반기 분기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실적 반등과 맞물려 보상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업이익N%’ 방식은 2021년 SK하이닉스가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변경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해 9월에는 상한 폐지로 이어졌다. 삼성전기도 지난 5월 반도체(DS)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상한 없이 신설했다. 삼성SDS는 현금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자사주로 지급하는 개편안 찬반투표를 오는 7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계열사별 요구 수위와 상한선을 둘러싼 노사 간 견해차는 하반기 협상의

변수로 꼽힌다. 삼성전기 준중노조는 영업이익의 12~15%를 요구하며 노사협의 회 주도의 기준 결정에 반발해 왔다. 특히 상한을 폐지한 SK하이닉스나 상한 없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한 삼성전자와 달리 삼성전기는 연봉 50% 상한이 유지돼 쟁점으로 남아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성과급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롤이 된다”며 “직원 몫 10% 안팎에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까지 합치면 이익의 25%가량이 배분되는 셈이지만 비율 자체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가 직원과 주주뿐 아니라 협력사 등 공급망을 포함한 전체 이해관계자에게 배분되는 이윤배분의 원칙과 제도적 체계를 가다듬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충청권, AI·반도체·바이오 전초기지로... 메가특구 띄운다

산업부, 충청권 육성전략 발표

삼성 140조·SK하이닉스 100조 AI·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집중 메가특구 지정해 복합규제 완화 7대 정책 패키지로 지방투자 지원 충전대 TF, 100일 내 계획 마련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국내 첨단산업을 이끄는 앵커 기업들이 충청권에 총 392조 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차세대 기술의 글로벌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충청권을 낙점한 것이다. 정부 역시 대규모 복합 규제를 과감히 푸는 '메가특구' 지정과 7대 정책 지원 패키지를 가동하며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중앙·지방정부, 산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세계 최초로 투자된 8.6세대 OLED 양산을 위한 첫 유리기판이 현장 라인에 투입되는 날, 해당 현장에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 삼성 140조·SK 100조... 차세대 전초기 지 구축

우선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전문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단순한 공장 증설을 넘어, 차세대 시장을 지배할 최첨단 기술의 마더라인과 패키징 팹을 충청권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삼성에는 핵심 계열사 역량을 충청권에 집결한다.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라인, 삼성전자의 H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앞서 삼성디스플레이의 AR 글라스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BM(고대역폭메모리) 팹 및 패키징 공정이 들어선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고성능 패키지 기반을, 삼성SDI는 최첨단 배터리 신공법 마더라인을 구축해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급증하는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낸드(NAND) 플래시 및 첨단 패키징 팹 구축 등에 약 100조원, 셀트리온은 약 2조원 규모 투자를 통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여기에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 기타 기업들의 약 150조원이 더해지면서 투자 충전권에 유입되는 총 투자 규모는 39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 정부, 규제 대폭 푼 '메가특구' 지정... '투자 지원 부스터' 가동

정부는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대형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부품, 바이오 등 4대 성장엔진의 성장 가속화를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더욱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로 대규모 지방투자를 촉진한다. 재정, 금융, 규제, 기술, 세제, 인력, 인프라 등 7개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묶은 투자 지원 부스터(Booster)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특히 기업들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고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복합 규제를 한 번에 걷어내는 '메가특구'를 지정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수혈해 지방 투자를 촉진한다.

지역 산업 생태계도 기업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는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실증센터'가 들어서 R&D부터 양산까지 전주기를 돕는다. 반도체 분야는 첨단 패키징 R&D와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이차전지는 배터리 화재 안전성 평가센터, 바이오는 공공바이오 파운드리 등을 각각 구축해 산학연 혁신을 다진다.

◆ '충전대 TF' 즉시 가동... 100일 내 종합지원계획 마련

정부는 '더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는 기업 투자를 이끌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투자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지원전담 조직인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TF(충전대 TF)'를 즉시 가동해 100일 이내 '충청권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마련, 기업의 입지, 인허가, 전력, 용수, 인력, 금융 애로 등을 한 곳에서 접수해 신속 해소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충청권은 사람, 기술, 산업이 모이는 사통팔달의 대명사로, 충청권 첨단산업의 성장이 곧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와 합심하여 오늘 발표된 투자 계획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충청, IT 소재부품 허브"

» 1면 '삼성 HBM생산...'서 계속

그러면서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 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몰려들고, 또 모든 국민과 모든 국가가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꼭 만들어내자"며 "훗날 우리의 도전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원대한 대항해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달 29일에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 행사로, 이재용 회장과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서진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은 최첨단 소재·부품산업 투자계획, SK는 낸드와 첨단 패키징 투자, 셀트리온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단계별 공장증설투자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이재용 회장은 환영사에서 "국토의 중심 충청은 앞으로 IT 소재부품의 글로벌 허브로서 더 큰 성장을 이루어갈 것"이라며 "AI 시대의 미래 성패는 AI를 구동하는 소재와 부품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삼성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AI 반도체 전력 수요 급증... 생산기지 입지 기준 재편

AI 호남 반도체 시대

② 에너지가 답이다

AI 팹 가동에 6.3GW 전력 필요 수도권 전력·용수 한계 부각 RE100 대응·PPA 확보가 변수 송전망·ESS 구축이 성패 관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러 후보지 가운데 호남을 제2반도체 생산기지로 택한 데는 전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반도체 공장의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서, 입지를 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인력·교통에서 전력으로 옮겨갔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는 6.3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 1.4GW급 대형 원전 약 4.5기가 상시 생산하는 전력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하루 65만톤의 산업용수도 함께 공급해야 한다. 협력업체 입주와 인구 유입까지 감안하면 실제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은 이미 전력 공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보고회에서 기존 용인·평택 거점이 전력과 용수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호남은 전력에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전남은 한빛원전과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은 상당 부분 수도권으로 송전됐다. 수도권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변전망 구축에 수십조원과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 생산지에 반도체 팹을 짓는 것 자체가 국가 전력망 부담을 대는 선택이기도 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호남은 그동안 원전과 햇빛, 바람으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역할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호남에서 생산한 전기로 호남 반도체 팹을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빅테크의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 요구도 호남의 입지 가치를 높인 요인이다.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고객사는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과 반도체까지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것을 공급사에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어느 지역에 팹을 짓든 RE100 이행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조달 방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서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사들이는 간접 방식에 의존해야 해 비용 부담이 크다. 반면 태양광-해상풍력이 밀집한 호남에서는 인근 발전소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어 실제 재생에너지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다. 전영

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보고회에서 정부에 PPA 추진을 건의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경북 등 다른 지역도 유치 경쟁에 나섰다. 원전을 갖춘 경북은 전력을 앞세웠으나, 원전 중심 구조여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실현에서는 호남에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 해안가인 무안-해남도 후보에 올랐지만 염분과 습도가 정밀공정인 반도체 생산에 약점으로 지적된다. 전력과 용수, 부지 조건을 두루 갖춘 호남 내륙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광주를 신규 팹 부지로 공식화했고 SK하이닉스의 경우 광주첨단3지구와 전남 장성 일대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도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쓰도록 해 지역별 전기요금에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호남 반도체 팹이 소비하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혜택과 송전 손실 절감으로 기업의 전력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관건은 재생에너지만으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다. 반도체 팹은 순간적인 전압 변동조차 허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전력 품질 산업이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한다. 발전 공백을 메우려면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양수발전 등 보강 설비가 필요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활용하고 ESS-양수발전을 확대해 전력 공급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공급 계획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력·용수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호남의 전력 경쟁력이 실제 반도체 생산으로 이어지면 송전망과 변전소, 계통 안정 설비를 제때 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4년 내 팹 가동을 목표로 내년 9월 준공 예정인 신장성 변전소를 거점으로 공급선로를 조기 구축한다는 계획이지만 통상 송변전망 구축에 인허가를 포함해 10년 인력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속도전이 요구되는 셈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전력 측면에서 재생에너지가 유리할 수 있지만 24시간 끊김 없는 공급이 관건"이라며 "인프라가 제때 뒷받침되느냐가 호남 반도체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jia_tea@



K9·천무 발판 우주방산 키운다

AI·무인화로 미래 정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와 항공엔진으로 대표되는 제조 경쟁력을 앞세워 우주·AI 방산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병력 감소와 전장 환경 변화로 무인·자율 전력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 AI 전환과 민간 주도 우주개발 정책이 맞물리면서 방산업계의 성장 속도 지상 전력에서 항공우주와 무인체계로 확대되고 있어서다. 안정적인 수주잔고와 계열사 간 방산 역량 결합을 바탕으로 향후 육·해·공·우주를 아우르는 종합 방산기업으로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항공엔진서 지상방산까지...M&A로 방산 축 재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7년 삼성정밀 공업으로 출범한 뒤 항공엔진 사업을 중심으로 제조 기반을 쌓아왔다. 1979년 가스 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전투기와 헬기 엔진의 생산·정비를 맡으며 국내 항공엔진 분야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했다.

사업의 무게중심은 한화그룹 편입 이후 방산으로 넓어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11월 한화디펜스를 흡수합병한 데 이어 2023년 4월 ㈜한화 방산부문까지 편입하며 지상 방산 역량을 한데 묶었다. 2023년 5월 한화오션이 한화그룹에 편입되면서 그룹 차원의 방산 포트폴리오는 해양 분야까지 확대됐고 2024년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 인적분할을 거쳐 방산·항공우주 중심의 사업 구조가 자리 잡았다.

지난해 매출 26.6조, 영업이익 3조 노르웨이에 1.3조 규모 천무 수출 올해 지상방산 수주잔고 39.7조 무인차량,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육·해·공 통합솔루션으로 확장

이 같은 재편은 실적으로도 확인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매출 11조 2462억원, 영업이익 1조 7247억원에서 2025년 매출 26조 6078억원, 영업이익 3조 345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약 137%, 영업이익은 약 75% 증가하며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지상방산 부문의 성장과 항공우주 부문 흑자 전환, 한화오션의 연간 실적 연결 효과가 맞물리며 외형과 수익성이 함께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서도 수주 기반은 확대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노르웨이 천무 수출 계약 등이 반영되면서 지상방산 부문 수주잔고가 약 39조 7000억원으로 늘었다. 2025년 말 37조 2000억원 수준이던 잔고가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하며 중장기 실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다연장로켓.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K9·천무 수출 기반으로 AI·무인화 투자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래 전장 사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을 중심으로 한 지상방산 수출 경쟁력이 있다. 유럽과 중동 등에서 화력체계 수요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수주 기반이 마련됐고, 이를 바탕으로 무인체계와 AI 방산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다.

전장 환경 변화도 무인화 투자를 앞당기고 있다. 병력 감소와 인명 피해 최소화 요구가 커지면서 정찰, 수송, 폭발물 탐지, 전투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체계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 화력체계가 전장의 타격 수단이었다면, 무인차량과 로봇은 병력을 대신해 위험 지역에 투입되는 미래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 무인차량을 중심으로 관련 제품군을 넓히고 있다. 미국 해외비교시험을 거친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을 비롯해 차세대 무인차량 '그루트',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다. 2028년까지 소형·중형·대형

‘스페이스허브’ 중심 우주 사업 누리호 제작·조립 총괄 관리 역할 KAI 지분 8.67%... 2대 주주 굳히기 경영 참여 변수, 재무 부담은 과제

급 차분형과 궤도형 무인차량 제품군을 확보해 지상 무인체계 라인업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무인화 전략은 계열사 간 협업과도 맞물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 무인 체계에 한화시스템의 위성통신·감시정찰 기술, 한화오션의 무인 함정 기술을 결합하면 육상과 해상, 공중 전력을 연결하는 통합 솔루션으로 확장할 수 있다. 단품 무기 공급을 넘어 AI와 네트워크 기반으로 전장을 운용하는 체계 사업을 겨냥하는 셈이다.

◆ 우주·KAI로 항공우주 포트폴리오 강화 무인화와 함께 우주 사업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래 방산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핵심 분야로 꼽힌다. 한화그룹은 ‘스페이스허브’를 중심으로 발사체와 위성 제조, 위성 서비스로 이어지는 우주 사업 벨

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가운데 발사체 사업을 맡고 있다.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으로 반복 발사와 정의 제작·조립과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 주도 우주개발의 핵심 기업으로 입지를 넓히고 있다.

항공우주 분야 확장은 KAI 지분 확대를 통해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한국항공우주 보유 주식을 기존 989만 6023주에서 1093만 623주로 늘리며 지분율을 8.67%까지 높였다. 한화에어로의 특별관계자인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각각 1.53%, 1.01%를 보유하고 있어서 회사의 합산 KAI 지분율은 11.21%다.

이번 지분 확대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약 1500억원의 취득 자금은 자체 보유자금으로 조달했다. 한화그룹은 앞서 지난달 16일 KAI 지분율을 9.04%로 끌어올리며 국민연금을 제치고 한국수출입은행에 이은 2대 주주에 오른 데 이어 추가 매수로 영향력을 더 키우고 있다. 지분율이 5%를 넘어선 뒤 보유 목적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꾼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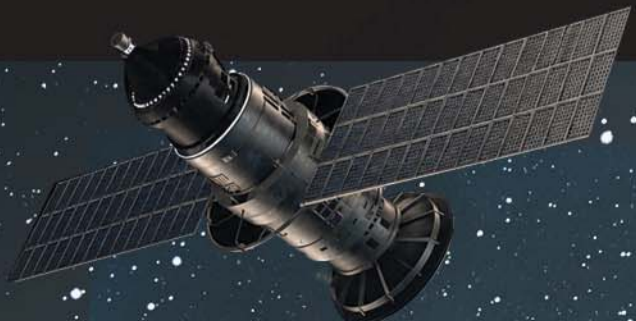
KAI는 FA-50, KF-21 등 완제기 개발·제작 역량을 보유한 국내 핵심 항공우주 기업이다. 한화 입장에서 지상전력과 해상전력, 위성·전자체계에 항공 플랫폼까지 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K9·천무 중심의 지상방산, 한화오션의 함정 사업, 한화시스템의 위성·전자전 역량에 KAI의 항공기 개발 역량이 더해질 경우 육·해·공·우주를 아우르는 방산 포트폴리오 구축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

다만 실제 경영 참여 확대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 정부의 KAI 지분 매각 여부와 민영화 방향, KAI 노조 반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인체계와 우주 사업도 본격적인 수익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대규모 선행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 관리 역시 과제로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AI 지분 확대는 단순한 재무 투자보다 항공 방산과 우주 사업까지 사업 축을 넓히려는 전략적 행보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정부의 KAI 지분 매각이나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문희 기자 wkh@metrosoo.co.kr





KT 장기고객님을 초대합니다

2026년 7월

日 SUN	月 MON	火 TUE	水 WED	木 THU	金 FRI	土 SAT
----------	----------	----------	----------	----------	----------	----------

KT를 오랫동안 사랑해 주신 장기고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뮤지컬 '그날들'에 초대합니다

MUSICAL

그날들



출연 - 박세힘·엄기준·윤시윤·고창석



자세히 보기

초대드림 · 7.25(토) 뮤지컬 '그날들'(1,200석) 초대드림 | 모집기간: 6.19(금)~ 7.8(수)
· KT 위즈파크 캠핑존 초대드림 | 월 별 상시 정기 초대

쿠폰드림 데이터, OTT/지니TV/로밍 할인 등
14종 쿠폰드림

KT 장기고객 초대드림/쿠폰드림은 KT 휴대폰, 인터넷, IPTV의 각 이용기간을 합해 5년 이상 되는 고객님들께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초대드림 응모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k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관위 현장조사·토론회… 국민의힘 “해체 수준 쇄신” 압박

국조특위위원장 “민주주의 배임 행위”
국힘 “野 추천 검사 통한 진상 규명”
수사 대상·특검 추천 주체에 여야 이견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훼손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두고 정치권이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관련 토론회에서 국정조사를 넘어 야당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해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송파구 선관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계산 실수가 아니라 참정권을 박탈한 민주주의 배임 행위를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중량구 나 서대문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인쇄 비율을 상향했는데 유독 송파구만 50%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왜 특히 사전 투표율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훼손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정치권이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현장보고회’에서 김남훈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직무대리의 브리핑을 듣고 있는 모습. /뉴스시

이 낮은 송파구에서 (인쇄 비율을) 그대로 유지했는가”라고 물었다. 서 의원은 “송파구 선관위를 비롯한 중앙선관위가 소극적”이라며 “선거 업무용 사무실도 우리가 오는 걸 알면서도 계약 연장이 불가해서 철거했다는 것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며칠 만이라도 연장해

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잠실 4동 7투표소는 오전 11시34분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예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전 1시간 동안 약 340매가 소진됐다고 한다면, (당시) 400매 정도

남은 상황에서 아무리 길게 봐도 한 시간이면 투표용지가 소진된다”며 “투표 감독관이 남아 있는 투표용지를 분명히 보고 있었을 텐데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김태규·나경원·윤용근 의원 주도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돼 선관위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주체 등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하고 있지만, 반드시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에 임명돼 실태를 파악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검 수사 발표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에 따른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겠다”고 약속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가 무능·부패 조직이 된 첫 번째 이유는 헌법을 오독(誤讀)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개헌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제대로 읽으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부문을 해결하는 것부터 선관위를 다시 만드는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김기현 의원은 선관위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파산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조직을 어떻게 뜯어고치려는 문제인데 그 첫 번째는 위철한 상임위원(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당장 쫓아내는 것”이라며 “수고급이 버티고 있는데 무슨 개혁이 되겠냐”며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당무 감사위원장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김민석·정청래, 지역 돌며 당심 잡기 ‘총력’

김민석, 충청서 李 정부 업적 소개
정청래, 호남 지역 찾아 민심 호소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일 순회경선의 시작과 끝을 맺는 충청을 찾아 당심을 공략하고, SK하이닉스 청주 캠퍼스를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당 대표 ‘연임론’을 펼치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친명(친이재명)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당권 레이스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김민석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소재 육거리시장을 방문해 바닥 민심을 들여다보고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지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후엔 SK하이닉스 청주 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 ‘경제 전문가’의 면모를 보였다.

전날(1일) 이임식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김 전 총리는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 출연해 “(정 전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대표직을) 두 번 할 필요나 필연성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며 정

전 대표를 견제했는데, 다음날에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시민·소상공인·자영업자와 스킨십을 늘리고 수출 주요 품목인 반도체 공장도 방문하며 ‘차별화’를 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육거리시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세계적인 격변기에 대한민국 명운을 가늠할 역사적, 그야말로 국가적 승부수”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호남 한 지역에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지만 호남, 충청, 영남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수도권으로 편중돼 있던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꾸는 대전환의 승부수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시장 상인을 만난 소감을 두근 “전통시장을 찾을 때 최근 증시가 과거에 비해 호전됐거나 전반적인 첨단 경제 부문의 산업이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물가,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에 그늘이 지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생각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당에 돌아와서도 첨단 산업을 챙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민, 바다

의 민생 경제를 같이 챙기겠다는 노력을 같이 하겠다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날(1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화동해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을 지켜보았지만, 친명계를 향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내부에서 조롱과 혐오 멸칭이 난무하며 갈등을 키우는 일부 세력에게 어찌 두 분의 만남과 메시지가 큰 울림과 정문일침(諍言—針-피곤한 충고)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가 언급한 ‘일부 세력’은 자신의 연임을 비판하는 친명계를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또한 SNS에 광주 5·18민중추진회 당시 피해자 유가족 및 여성 피해자의 씬터인 ‘오월어머니집’ 방문 소식을 알리며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정 전 대표는 “오월어머니집 한도 풀어드리고 5월 영령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5·18 헌법전문수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힘, 상임위 참여 거부… 대야투쟁 강화

“법사위원장 양보 못 해”

국민의힘이 2일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배분된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 상임위원회 구성 수용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인 결과, 이에 협조하지 않고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한 대야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2시간에 걸쳐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결론은 이 상태대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가져갔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법사위를 그토록 고집했다”며 “왜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원장에 임명했다. 공소취소특검법을 더 신속하게 통과시켜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원 구성을 위해 17차례 원내 지

도부 등이 만나 협상을 이어갔으나, 법안 통과와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직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국회의장을 원내 1당,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 ‘견제와 균형’을 이뤘던 만큼,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됐고 지난 6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국회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국민의힘 몫의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태홍 기자

李 “3대 메가프로젝트, 한국판 실리콘밸리”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확보 전략
정책·법령 정비·예산 배정 최우선 순위
미래 성장동력 확보·양극화 해소도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최근에 발표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균형과 격차 완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세계는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며 “반 발짝만 늦어도 영원히 뒤처지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 또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건 4차 산업혁명의 승자가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되 돌아보면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도약의 문을 열어왔다. 예를 들면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입국에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미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의 정비, 또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

행의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추가로 이어질 투자 계획 수립과 투자계획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된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함께, 사회의 불균형과 격차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자형 양극화를 방지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려 있다는 자제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기본적 생활안정망 강화를 토대로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 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며 “특히 최근에 예상되고 있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새롭게 펼쳐질 당신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이
제2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가 당신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중장년 맞춤형 재취업 교육 지원

- 직무별 특화 교육 및 시실무 역량 강화
-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한 재취업 기회 제공

고령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시니어 토탈 케어 하나 행복드림(Dream) 버스 운영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내집으로 받는 평생연금

- 주택 가격 제한 없는, 내 집으로 준비하는 노후 자산 솔루션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은행 가계대출 9조 급증... 대출문턱 높아진다

2분기 5대은행 대출잔액 775조
증시 활황에 신용대출 증가 확대
투자 대기자금 121.6조 10% 상승

올해 2분기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전 분기 대비 9조 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은행권의 대출 문턱도 더 높아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2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74조96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765조7290억

원)보다 9조2317억 원 증가한 규모다. 전월과 비교해서도 4조1379억 원(0.5%) 늘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증가율이 지난해 말 대비 0.9%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한달 간의 증가속도는 상반기 전체 흐름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빠른 편이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배경에는 증시 활황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6704억 원으로 전월보다 2조1550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4월 3182억 원 감소했지만 5월(2조1741억 원)과 6월(2조1550억 원) 연이어 2조 원 이상 증가했다.

이는 최근 증시 강세와 투자 열기 확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지난 4월 말 기준 전월 대비 30.6% 급등한 데 이어 5월 말에도 28.4% 상승하며 강세장을 이어갔다. 특히 6월 들어서는 하루 만에 지수가 10% 가까이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단기 매매 차익이나 저가 매수를 노린 투자 수요가 늘면서 신용대출을 활용한 투자 자금 조달도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 대기자금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3월 말 110조889억 원이었던 투자자에

5451억 원(10%)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하반기 은행권의 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증시 강세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까지 겹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은행들도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신용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심사가 지금보다 더 까다로

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청년미래적금 신청자 누적 200만명 넘어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자가 9영업일 만에 2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2일 청년미래적금이 오후 1시 기준 누적 201.2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년 동안 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는 정부지원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신청은 오는 7월 3일까지 가능하며, 아직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신청 종료후 3주동안 자격심사를 통해 24일 신청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심사 통과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 이후에는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상세 정보는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1100조 육박 '사상 최대'

한은, 전분기 대비 2.6조 증가
연체액 22조, 연체율 2.04%로 상승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 12.79% 달해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10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연체액도 처음으로 22조 원을 넘어서는 등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박성훈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109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2조6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연체 지표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연체액은 2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 원 늘었고, 연체율도 1.86%에서 2.04%로 상승했다.

특히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12.79%까지 치솟았고,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이 커지고 있다. /뉴스1

전문금융회사의 연체율도 3.98%를 기록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도 여전하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약 1조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차주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56만 원 늘어나며, 다중채무자의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은 1조1000억 원, 1인당 부담은 65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이 커지는 배경에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이 자리하고 있

다는 분석이다. 매출 감소로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대출에 의존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금융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부의 '2025년 소상공인 폐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체는 97만6000개로 전년(100만8000개)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폐업 사유의 70.9%는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이었으며, 매출 감소 원인으로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가 6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폐업 과정에서도 금융 부담은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폐업 소상공인의 68.5%는 폐업 당시에도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부채 규모는 8531만 원이었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대출금 상환'(45.5%)이 꼽혔다.

폐업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가계 생계비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채무 부담과 재취업·재창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폐업 이후에도 금융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폐업 사업체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이를 경영 여건 개선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상당수 자영업자가 폐업 대신 대출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금융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다소 줄어든 것은 경기 회복보다는 대출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내수 회복이 지연될 경우 연체율 상승과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서금원 부원장 임명 지연 ‘낙하산 인사’ 염두한 것”

서금원 노조, 금융당국에 임명 촉구
당국 “관련된 절차 진행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부원장 임명을 놓고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금원이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체 임원추천위원회를 가동해 후보군을 추천했지만, 부원장 임명 절차가 3개월째 늦어지고 있어서다. 서금원 노조가 이번 지연을 두고 ‘낙하산 인사’를 염두한 고의 지연이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적합한 절차를 거쳐 부원장을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금원 노동조합은 지난 1일 금융당국의 서금원 부원장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외부 공모를 진행하고 후보를 선정해 제출했으나, 금융당국이 3개월째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금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 상담 및 맞춤형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정책기관으로, 부원장은 서금원 원장을 보조해 핵심 사업을

총괄 및 지원한다.

서금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되는 서민금융법은 서금원장이 부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이를 검토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역대 부원장은 별도의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출신이 서금원장의 제청을 거쳐 관행적으로 임명됐다. 현직인 최인호 부원장도 금감원 출신으로, 지난 1월 임기가 종료됐으나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원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가 거듭 부임하며 기관 독립성과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서금원은 지난해 말 임추위 규정을 개정했다. 부원장 선임 시 외부공모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인재를 모색하고, 임추위 검토를 거쳐 후보군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후보군 선정 이후에도 관련 절차가 3개월째 접어들면서, 서금원 노조는 ‘보은성 인사’를 염두한 고의지연이라고 지적했다.

서금원 노조는 성명문에서 “서금원은 임원 선임에 내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성을 검증하고자 임추위에 공모 절차를 신설했다”라며 “그러나 금융당국은 후보군 제출 이후에도 부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위해 임명을 고의로 늦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적합한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원장 임명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제청하고,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면서 “법적 문제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금원의 부원장 선임 절차 단계는 인사검증 단계에서 멈춘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개정된 수칙에 따라 서금원 임추위가 최종 후보군(순리스트)을 선정해 제출했지만, 후보군을 검토하고 최종

후보자를 확정해야 할 청와대에서 확정을 미루고 있는 것.

서금원 내부에서는 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임추위 절차가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적합한 공모 절차를 거친 후보자 대신 정치권이나 당국의 입맛에 맞는 ‘보은성 인사’가 부임하는 과정에서 서금원의 인사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부원장 임명 제청은 현재 진행중인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서금원 노조에서는 사실상의 임명권을 금융위가 쥐고 있는 만큼, 이번 부원장 임명에서도 원하는 인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금원 노조 관계자는 “부원장은 사적 이익을 위한 자리 배분의 대상이 아니라, 서민의 경제적 자활과 재기 지원을 위한 중요한 자리”라면서 “임추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아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인사를 결정하면 서금원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상반기 5% 이상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고강도 규제에도 올해 상반기에만 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규제를 피한 화성시 동탄이 13%나 급등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9일 기준 전주 대비 매매가격지수는 0.09% 상승, 전세가격지수는 0.11%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올랐다. 전주(0.3%) 대비로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 피한 화성시 동탄 13% ↑
서울 주간 매매가 0.27% 상승
경기 전주와 같은 0.19% 올라

부동산원은 “서울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도 높은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며 “매수문제가 꾸준하며 상승거래 이어지는 등 서울 전체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전주와 같이 0.19% 상승했다. 이달부터 규제 지역으로 묶인 화성 동탄구가 1.46%로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성남 수정구(0.43%)와 수원 영통구(0.41%), 성남 분당구(0.41%) 등도 상승세가 가팔랐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65% 올라 2025년(-0.13) 대비 상승세로 전환했다. 특히 서울은 25개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만 5.11%나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가상공간 달리고 AI 품질 관리... SDV 시대 신차개발 '혁신'

Q 르포 |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적층제조 솔루션 등 현장변화 눈길
가상공간 통해 다양한 데이터 검증
개발속도·비용·품질 경쟁력 확보

과거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신차 개발 기간을 통상 4~5년으로 잡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2년까지 개발 기간을 단축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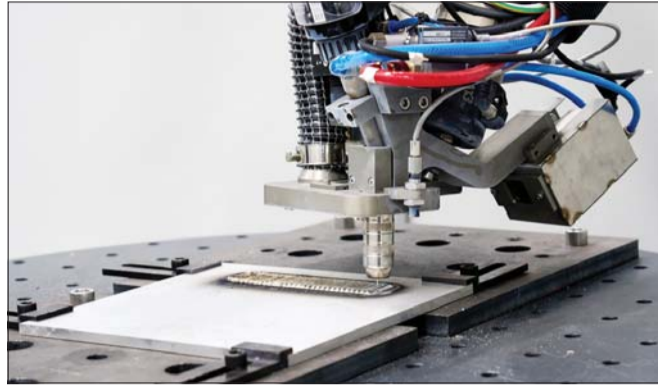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기아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상 공간을 활용한 해외 지역별 상황과 차량의 부품별 특성을 검증한 뒤 생산 기지와 데이터를 교류하며 개발 속도와 비용,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1일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를 찾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 개발현장의 변화를 직접 확인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적층 제조 솔루션 센터(AMSC)다. 흔히 3D 프린팅으로 알려진 적층제조 기술을 연구·활용하는 공간이다. 센터 안

에 들어서자 여러 대의 3D 프린터가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DLP 방식은 자외선으로 액상 수지를 한 층씩 굳혀 부품을 만들고, SLA 방식은 레이저를 빠르게 움직이며 필요한 부분만 차례로 제작했다. 금속 에너지 적층셀에서는 WAAM(Wire Arc Additive Manufacturing) 공정이 진행됐다. 아크 열로 금속 와이어를 녹여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기술로, 알루미늄은 시간당 10~15kg까지 적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잡한 형상의 경량 부품이나 모터스포츠용 부품은 물론, 단종 차량의 유지보수 부품과 헤리티지 차량 복원에도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SDV 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개방형 제어기 검증 공간인 노바(NOVA·Next-generation Open Validation & Automation) 랩으로 일반인이 가장 낮게 느낄 공간이었다. 차량은 없고 배선과 제어기만 빼곡하게 연결된 '와이어카'가 통신과 기능, 진단을 실차 제작 이전 단계에서 검증하고 있었다. 공조장치와 램프, 시트 기능은 물론 주행 상황과 동일한 조건에서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 시험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의 가장 큰 변화를 확인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에 위치한 적층제조솔루션센터에서 적층제조를 하는 모습.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주행 모습. /현대차그룹

할 수 있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스튜디오를 찾았다. 이곳에서는 한 연구원이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특정 상황을 구현해놓은 가상 도로 위에서 주행하며 연구원들과 소통하며 주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가상 공간에서 주행 성능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70도 곡면 스크린과 6자유도(6DOF) 모션 플랫폼을 통해 실제 차량과 거의 동일한 주행 환경을 구현한다. 남양연구소 주행시험장의 노면은 1mm 단위까지 정밀 스캔해 가상 환경에 반영됐으며, 과속방지턱이나 노면 요철, 아스팔트 질감까지 그대로 재현된다. 특히 이곳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노면 상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차종별 선택과 공기압 상태 등 다양한 상황을 구현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반복 검증을 통해 차량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찾은 디지털 측정센터(DMC)에서는 차량의 치수와 조립 품질 등을 데이터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접촉식 측정장비(CMM)는 차체의 수백 개 측정 포인트를 좌표로 관리했고, 광학식 3D 스캐너는 도어와 후드 등 부품을 가상공간에서 분석해 설계 데이터와 비교했다. 완성차 복합 측정실에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품질 문제의 원인까지 역추적하고 있었다. 또 수집된 측정 데이터는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활용되고 있다.

남양연구소에서 확인한 네 가지 핵심 기술은 서로 다른 분야를 담당하지만 하

나의 목표를 향한다. 실차 제작 이전에 가상환경과 데이터를 활용해 충분히 검증하고, 개발 효율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다.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 첨단 제조기술, 전기·전자 검증 체계는 SDV 시대 차량 개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첨단 제조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비로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남양연구소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차량 개발 방식을 혁신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양성로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포스코그룹, '리튬·철강·에너지' 사업 대전환

향후 3년간 16조7000억 투입
장인화 회장 "성장 기회 창출"

포스코그룹이 향후 3년간 16조7000억 원을 쏟아부으며 리튬·철강·에너지를 세 축으로 한 사업 대전환에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2일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산업·전략·에너지 자원을 아우르는 트리플 코어 체계를 구축해 국가대표 핵심자원 공급자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것은 리튬을 필두로 한 전략자원이다. 포스코그룹은 2033년까지 연 17만3000톤의 리튬 생산 체계를 완성해 글로벌 리튬 TOP 5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2035년 리튬사업 영업이익 1조8000억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염수 리튬은 지난 3월 포스코아르헨티나가 영업 흑자로 전환한 데 이어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의 대규모 투자유치 제도(RIGI) 승인까지 획득하며 수익 구조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2033년 10만톤 생산 체제 완성을 목표로 3·4단계 투자도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2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언하는 모습. /포스코홀딩스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광석 리튬은 호주 미네랄리소스와의 합작 계약으로 제련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하고 연 18만7000톤 이상의 리튬 정광을 확보했다.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안정적 수익도 기대된다.

포스코그룹은 전기차·로봇산업의 핵심 광물인 희토류와 희귀·특수가스도 전략자원으로 육성해 국가 미래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철강은 인도·미국·인도네시아 등 유망 시장에서 2031년까지 생산능력을 1000만

톤으로 확대하고, 확보한 수익을 국내 저탄소 전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에너지자원은 LNG 트레이딩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 해상풍력·해외 태양광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사업 분야에서는 철강 현장에서 축적한 자동화·지능화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세스 산업용 피지컬 인공지능(AI) 사업화에 나설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이 같은 포트폴리오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2028년 3년간 미래 성장 투자에 16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공급망 불안정과 저탄소 전환 가속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과감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해야 할 때"라며 "철강, 소재에 이어 자원으로 업(業)의 영역을 확장해 국가 산업 안보와 공급망 강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이승혁 수습기자 sh95@

효성중, 호주서 대규모 전력기기 수주 행진

조현준 회장 선제적 시장전략 성과

조현준 효성중 회장(사진)의 선제적 호주 시장 전략이 대규모 전력기기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지난 1일 호주 빅토리아주 송전망 운영사 오스넷(AusNet)과 3100억원 규모 초고압변압기·리액터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효성중공업은 향후 5년간



빅토리아주 송전망에 초고압 전력기기를 독점 공급한다.

이번 수주는 지난 3월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따낸 1425억원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에 이은 대형 계약이다.

효성중공업은 현재 호주 송전시장 초고압변압기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

난 10년간 고객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과 현지 법인의 대응력을 바탕으로 주요 전력회사와 협력 관계를 확대해 왔다. 이번 계약으로 빅토리아주를 비롯해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스, 남호주 등 호주 주요 지역에 초고압 전력기기를 공급하며 현지 사업 기반을 더욱 넓히게 됐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오스넷 계약을 계기로 초고압변압기 공급을 넘어 고압직류송전(HVDC),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S TATCOM) 등 차세대 전력망 솔루션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LS일렉, 세계최초 100% 직류 배전공장 가동

'LS일렉트릭 DC팩토리 준공식' 개최

LS일렉트릭이 충남 천안사업장에서 세계 최초 100% 직류(DC) 배전 공장을 본격 가동하며 차세대 전력 시장 선점에 나선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산으로 고효율 전력 인프라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직류 배전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글로벌 표준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충남 천안사업장에서 체대석 대표이사,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S일렉트릭 DC팩토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DC팩토리는 반도체 변압기(SST), 반도체 차단기(SSCB),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LS일렉트릭의 직류 전용 핵심 기기를 적용한 직류 배전 제조 시설이다.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직류 기반으로 공급하고 제어하는 구조로 기존 교류 중심 제조 시설과 차별화했다.

체대석 LS일렉트릭 대표이사는 "천안 DC팩토리는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교류 중심의 전력 패러다임이 직류로 전환되는 역사적 이정표이자 제조 혁신의 결정체"라며 "차별화된 직류 기반 핵심 기기 역량과 제조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초고전력을 요구하는 AI 시대 전 세계 전력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로템, 로봇 등 미래사업 중심 조직 개편

항공우주사업 기능 강화 등 추진

현대로템은 항공우주사업 기능을 강화하고 각 사업부별로 흩어져 있는 로봇·수소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미래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전면 재편했다.

2일 현대로템이 밝힌 지난 1일자 조직 개편내용은 기존 사업 부문별로 분산된 차세대 사업 조직을 통합해 업무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업 발주 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 골자이다.

방산 부문의 디펜스솔루션(DS)사업부는 AD(Aerospace·Defense)&RH(Robot·Hydrogen)사업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산하 조직을 1사업부 4실에서 2사업부 6실 체제로 확대했다.

해외 방산 업무를 맡던 디펜스솔루션글로벌사업부는 항공우주 기능을 더한 AD글로벌사업부로 재편됐다.

방산·철도·에코플랜트 등 각 부문에 분산돼 있던 로봇·수소 조직은 하나로 통합해 RH사업부로 격상했다. RH사업부는 로봇·AX사업실과 수소에너지사업실로 구성된다.

철도 사업 부문인 레일솔루션사업본부는 RS(Rail&System)사업본부로 바뀌고, 기존 8실 체제에서 1사업부 8실 체제로 개편된다.

현대로템 측은 방산 부문은 민간 항공우주 사업 확대와 함께 피지컬 AI 수소에너지를 단일 컨트롤타워로 통합해 운영 효율성과 사업 추진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승혁 수습기자

주물기업 대동금속, 로봇·시온실 소재기업으로 '탈바꿈'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서 비전 제시
2030년 매출 2400억 목표
해외 매출 비중 단기 30% 확대
올해 수주 목표 1050억 상향

반도체·선박 부품 수주 증가
스마트팜 구조재 시장 공략
제조AX로 생산체계 고도화

내년 창립 80주년을 맞는 대동금속이 로봇·모빌리티 신합금, 스마트팜 구조재 등 신사업을 장착해 고부가가치 정밀주조·첨단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통해 2030년엔 지난해(1018억원)보다 매출이 2배를 훌쩍 넘는 24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현재 전체 매출의 약 10% 수준인 해외 비중도 단기적으로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동금속은 대동그룹의 전통 주물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1947년 탄생했다.

이풍우 대동금속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CMM 빌딩에서 진행한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지난 79년간 축적한 정밀주조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선, 발전, 반도체, 산업기계 등 고부가 산업군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며 "앞으로는 고부가 정밀주조 수주 확대와 첨단 소재 신사업, 제조 AX를 통해 미래 산업



이풍우 대동금속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CMM 빌딩에서 진행한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동그룹

소재·부품 기업으로 전환하고 2030년 매출 2400억원 달성과 기업가치 제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동금속은 전동화와 친환경 규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주조산업의 무게중심이 범용 주물에서 고부가 정밀주조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에 맞춰 관련 수주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반도체·조선·산업기계 등에서 신규 거래선을 확보하며 지난해에만 484억원 규모를 수주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설비부품, 선박 영역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어 관련 수주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만 279억원 어치를 수주했다. 당초엔 올해 수주 목표를 700억원으로 설정했지

만 이를 1050억원으로 높여 잡았다"고 설명했다.

대동금속이 현재 내다보고 있는 미래 먹거리 중 하나는 로봇·모빌리티 신합금 개발이다. 앞서 대동금속은 한국재료연구원(KIMS)과 협력을 맺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감속기 케이스, 액추에이터 하우징, 로봇 팔 프레임과 EV·UAM·드론용 경량 부품에 적용할 신합금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부터 2028년 사이 KIMS와 공동 개발 및 파일럿 라인 구축을 거쳐 2029년부터 고객사 성능 검증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외부 매출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룹의 미래사업인 AI온실 구축과 연

계한 스마트팜 소재 분야도 진출한다. 대동그룹은 농림부의 '국가 농업AX플랫폼' 대표기업으로 선정돼 전남 무안군 일대에 21.6ha(약 6만5000평) 규모의 첨단 AI 온실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내 스마트팜 시장은 현재 4조원 가량에서 2030년에는 두배 가량 성장할 전망"이라면서 "이 가운데 스마트팜 건축시장 규모가 제일크고 여기서 35% 가량이 뼈대, 골조 등 구조재 분야다. 내년엔 정밀주조 기술과 소재·부품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구조재 시장에서 첫 매출 발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강진 등 후속 스마트팜 프로젝트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로봇 소재 영역까지 사업을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사업 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 AX 기반의 생산체계도 고도화한다. 올해 4억원 이상의 제조AI 특화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 이후 약 12억원 이상을 투입해 자율형 공장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30년에는 ESG 완성형 스마트팩토리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량률 저감, 설비 가동률 개선, 납기 안정화, 에너지 비용 절감 등 고부가 정밀주조 확대에 필요한 제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대한전선, 포설선 2척 체제
해저케이블 시공 역량 강화
수은 1000억 지원으로 인수 재원 확보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전용 포설선(CLV)을 추가 확보하며 해상 시공 인프라를 두 척 체제로 갖췄다.

대한전선은 CLV '스칸디카넥터'호 인수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포설선은 해저케이블의 운송·포설 등 해상 시공 전반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다. 이번 지원으로 대한전선은 포설선 확보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해저케이블 시공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금융 지원은 지난 3월 대한전선의 당진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을 위해 진행된 4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의 연장선으로, 생산 설비에 이어 시공 인프라까지 정책금융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스칸디카넥터호는 자항능력과 선박위치정밀제어시스템 등의 설비를 갖춘 1만 1000톤급 국내 최고 사양의 포설선이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대한전선의 두번째 CLV '스칸디카넥터'호. /대한전선

HD현대일렉, 북미 AI 데이터센터에 1.1조 전력기기 공급

빅테크와 장기 공급 기본계약 체결
배전·전력기기 합산 최대 1조1212억
AI 전력수요 확대 속 북미 공략 속도

HD현대일렉트릭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커지는 북미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대형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배전기기와 전력기기를 함께 공급하는 패키지 역량이 수주 경쟁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최대 1조1212억원 규모의 배전기기 및 전력기기 장기 공급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제품별 계약 규모는 배전기기 5539억원, 전력기



HD현대일렉트릭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공급계약 체결한 배전 변압기(왼쪽)와 전력 변압기(오른쪽). /HD현대일렉트릭

기 5673억원이다.

이번 기본계약은 고객사의 데이터센터 구축 일정에 따라 실제 발주가 나누어 진행되는 방식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북미 지역에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에 관련 제품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는 배전기기와 전력기기를 함께 공급하는 패키지 역량이 반영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전력 수전부터 변압, 배전, 내부 전력 분배까지 안정적인 전력망 구성이

필요한 만큼 설비 간 연계성과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HD현대일렉트릭은 주요 전력 인프라 제품을 묶어 공급하며 설계 정합성과 납기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AI 서비스 확산과 클라우드 투자가 이어지면서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2024년 415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945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 증가분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관희 기자 wkh@

중견기업 경기전망 4분기 연속 상승

중견연, 3분기 경기전망지수 87.6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4분기 연속 상승하며 하반기 수출, 내수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26년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전망지수는 87.6으로 전분기의 82.8보다 4.8p 상승했다.

제조업(84.4)이 전분기(77) 대비 7.4p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비제조업도 2.5p 상승한 90.6으로 집계됐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지난해 3분기 당시 78을 기록한 이후 81.4(2025년 4

분기)→82.1(2026년 1분기)→82.8(2분기) 등 4분기 연속 오름세다.

중견기업 수출전망지수는 제조업(96.8, 7.4p↑)과 비제조업(94.0, 3.2p↑)이 모두 상승하면서 전분기(89.9) 대비 6.1p 증가한 96을 기록했다.

중견연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최종 합의에 따라 물류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해소된다면 수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수전망지수 역시 전분기(86.9)보다 3.2p 증가한 90.1로 나타났다. 제조업(90.7, 4.8p↑)과 비제조업(89.5, 1.6p↑) 모두 상승했다.

/김승호 기자

한화솔루션, 석화제품 톤당 최대 25만원 인하

정부 지원분 공유로 고객사 부담 완화

한화솔루션이 정부의 나프타 및 기초유분 지원에 맞춰 주요 석유화학제품 판매가격을 인하한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플라스틱 가공업체와 비용 절감 효과를 나누고 국내 제조업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한화솔루션은 폴리에틸렌(PE), 폴리염화비닐(PVC) 등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판매가격을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가격 인하는 정부의 나프타·기초유분 지원으로 발생한 비용 절감 효과를 고객사와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인하 폭은 제품별로 톤당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 수준이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조치를 통해 플라스틱 가공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정부 지원 효과가 최종 수요산업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석유화학제품은 포장재, 전자재, 생활용품,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의 기초소재로 쓰인다. 원재료 가격 변동이 가공기업의 생산비와 제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가격 인하가 중소 고객사의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솔루션은 가격 인하와 함께 안정적인 원료 공급 체계도 유지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중진공, 탄소중립 설비 지원
협력 중소기업 30곳 선정

원청 17곳 참여... 최대 3억 국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2026년 탄소중립 설비 투자 지원사업(공급망 트랙)' 지원 대상 기업 3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2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온실가스 관리 강화 등 국내외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자부담금을 지원하면 정부가 이에 국비를 더해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선정 기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개사,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0개사 등 공급망 내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공정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 17개 대·중견기업이 원청기업으로 참여해 협력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국비 지원 한도는 협력 중소기업의 자부담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협력 중소기업이 사업비를 10% 부담하면 최대 3억원, 협력 중소기업의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최대 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통신 3사, 차세대 양자보안 시장 선점 경쟁

KT, 유선방식 300kbps로 고도화 무선방식, 약 4.8km 거리서 작동 산업분야 적용 실증사례 소개도

SKT, 초소형 칩에 QRNG 구현 PQC, 디바이스·솔루션 등과 결합 LG U+, 알고리즘 업데이트 방식

통신 3사가 차세대 양자 보안 시장 선점에 나선다. 양자 컴퓨터 발전으로 기존 암호 체계가 무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보안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은 이날 국내 대표 양자 기술 행사 '퀀텀 코리아'에 참가해 미래 보안 기술을 선보인다. KT는 양자암호 기술을 공공·금융·국방 등 산업 분야에 적용한 실증 사례와 사업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SK텔레콤은 AI·6G 시대를 겨냥한 차세대 양자암호 기술과 보안 솔루션 중심으로 선보인다.

KT는 유·무선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통신망 적용 사례를 공개한다. 먼저 양자키분배(QKD) 중 지난해 독자적으로 구현한 유선 방식은 300kbps 수



SK텔레콤 전시 부스 모습.

/SK텔레콤

준으로 고도화한다. 무선 방식은 대전 대덕2연구소 인근 약 4.8km 거리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한 점을 강조한다. 향후 작동 거리를 10km 이상 확대하는 등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다.

양자내성암호(PQC)를 국방 주요 시스템에 적용한 시범전환 지원사업과 서울과 부산을 잇는 이기종 양자암호통신 연동 실증 등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신한은행 하이브리드 양자보안망, 국립암센터 AI 의료데이터 암호화 사업 등도 있다. 생태계 확장 전략은 국내 제조기업에 자체 기술을 이전해 양자 QKD 장비

군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AI와 6G 시대 보안 기술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광집적회로(PIC) 기반 QKD와 양자난수생성기(QRNG), 무선-위성 QKD 등 다양한 차세대 양자암호 핵심 기술로 소개했다.

먼저, 10Gbps급 고성능 QRNG를 초소형 칩에 구현한다. 송·수신부와 QRNG 광학계를 포함한 일체형 QKD 칩을 개발 중이다. 장거리 무선 통신에 적용 가능한 무선 QKD도 선보이며 향후 위성 탑재 가능성도 제시한다.

양자내성암호(PQC)는 보안 솔루션 Q

-HSM과 Q-SSE와 결합한다. 이는 드론, AICCTV, 로봇 등 디바이스와 제로트러스트 보안 솔루션에 활용되는 기술이다. Q-HSM은 하드웨어 보안 솔루션 기업 케이씨에스와 공동 개발한 양자 암호 칩으로 QRNG, PQC, 현대암호기술,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PUF)을 결합했다. Q-SSE는 QRNG와 PQC를 기반으로 제로트러스트 접근 제어와 안전한 LLM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향후 국방 및 공공 영역에서 증가하는 양자암호 수요와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기술을 개발해 국내 양자보안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는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알고리즘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인 양자내성암호(PQC)로 데이터를 보호한다. QKD와 달리 별도로 양자키를 주고받는 전용 인프라가 없이도 기존 망을 활용해 구축할 수 있어 확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퀀텀코리아 2026'은 이날 2일부터 4일까지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열린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두나무엔파트너스 에어스메디컬 후속 투자 글로벌 의료 AI 공략

누적 97억... MRI 솔루션 고도화

두나무엔파트너스가 AI 의료영상 솔루션 기업 에어스메디컬에 후속 투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의료 AI 시장 공략을 지원한다.

두나무의 투자 전문 자회사 두나무엔파트너스는 AI 의료영상 솔루션 기업 에어스메디컬에 후속 투자를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두나무엔파트너스는 지난해 시리즈C 투자에 이어 이번 투자에도 참여하며 에어스메디컬에 누적 97억원을 투자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운용자산(AUM) 65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사모펀드 TA 어소시에이츠도 공동 투자자로 참여했다. 다만, 투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에어스메디컬은 MRI 촬영 시간을 최대 50% 단축하면서 저품질 영상을 고품질로 복원하는 AI 솔루션 '스위프트MR'과 MRI 정량화·구조화 보고 플랫폼 '스위프트사이트'를 개발·공급하고 있다.

회사는 해당 솔루션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검사 처리량을 확대하는 한편 환자의 검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 1700여 개 의료기관에서 연간 600만 건 이상의 검사에 에어스메디컬의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에어스메디컬은 이번 투자금을 글로벌 시장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 AI 기반 MRI 솔루션 고도화 및 신규 제품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글로벌 AI, 네카오와 손잡았다... 韓, 전략거점으로 부상

네이버, 엔비디아·앤스로픽과 협력 카카오-오픈AI, 전략적 제휴 맺어 삼성전자, 업무환경에 챗GPT 도입

글로벌 생성형 AI 기업들이 한국 기업 확보 경쟁에 나섰다. 오픈AI와 앤스로픽, 엔비디아가 네이버와 카카오뿐 아니라 삼성전자까지 포함해 국내 플랫폼·대기업에 잇달아 협력 파트너로 선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경쟁도 개별 모델의 성능을 겨루는 단계를 넘어 생태계 구축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양상이다. 한국이 단순한 AI 서비스 소비 시장을 넘어 글로벌 AI 기업들의 전략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AI 기업들은 최근 국내 플랫폼과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AI 모델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 검색, 메신저, 쇼핑, 제조 등 실제 서비스와 산업 현장을 가진 국내 기업이 손을 맞잡는 구조다.

대표적 사례는 네이버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AI 인프라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와 AI 팩토리 구축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앤스로픽과도 기술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자체 AI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기술을 적극 활용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와 인프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기술 투자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사업자들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글로벌 AI 협력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카카오는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접목하고 있다. AI 기술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에 연결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플랫폼을 넘어 국내 대기업으로도 협력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국내외 임직원에게 확대 도입하며 생성형 AI를 업무 환경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AI 활용이 개발 조직을 넘어 일반 사무 업무까지 확

산되면서 글로벌 AI 기업들도 한국 기업을 단순 고객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이 같은 변화는 AI 산업의 경쟁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성형 AI 초기에는 누가 더 뛰어난 모델을 개발하는가 핵심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기업이 더 많은 파트너와 서비스를 연결해 생태계를 구축하는가 새로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AI 기업과 국내 플랫폼·대기업 간 협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AI가 검색과 메신저를 넘어 제조, 금융, 의료, 콘텐츠 등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AI 기술을 실제 서비스와 산업 현장에 연결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SK AX-한전, 발전·에너지 산업분야 AX 협력

AX에이전트 와이어 플랫폼 공급 향후 해상풍력 O&M 플랫폼 개발도

SK AX가 한국전력기술에 AI 에이전트를 공급해 발전·에너지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SK AX는 한국전력기술과 발전·에너지 산업분야 인공지능 전환(AI)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회사 측은 한국전력기술이 축적해온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SK AX의 인공지능 전환(AI) 역량을 더해 한국전력기술의 업무 혁신을 통한 운영 최적화와 AI 증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에너지 분야는 방대한 기술 데이



2일 경기도 성남시 SK 유타워에서 김완중 SK AX 사장(왼쪽 네번째), 김태균 한국전력기술 사장(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발전·에너지 산업 분야 AX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념 사진을 찍은 모습

터와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가 연결된 산업이다. 설계, 프로젝트 관리, 운영,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에서 인공지능(AI)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전소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AI로 최적화해 에너지 수요 대응력을 높

일 전망이다.

양사는 경영관리 등 백오피스 영역부터 발전소 설계·운영 등 핵심 사업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AX를 추진한다. 특히 한국전력기술의 전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회사 자체 플랫폼 'AX에이전트와이어 AI PMO'와 'AX에이전트와이어 NPO 에이전트 빌더' 등 도입할 예정이다. 에이전트와이어 AI PMO는 발전·에너지 프로젝트 제안, 착수부터 일정·비용 관리, 리스크 점검, 성과 관리까지 프로젝트 수행 전 과정을 AI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종합 관리 AX 플랫폼이다. 에이전트와이어 NPO 에이전트 빌더는 노토크 기반 AI 에이전트 개발 플랫폼이다.

앞으로 양사는 발전량 예측, 예지정비, 자산관리 등을 지원하는 해상풍력 O&M 플랫폼을 공동 개발해 글로벌 사업에 나선다.

/조민선 기자

마능스쿨 "AI로 부업 도전하세요"

수익화 방안·활용 방법 교육 초점

인공지능(AI) 예술 교육기업 마능스쿨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콘텐츠 제작과 수익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교육 과정은 AI로 제작한 이미지와 영상을 스톡 콘텐츠 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외주 및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하는 방법을 실습 중심으로 다룬다. 회사 측은 특정 수익 규모를 보장하기보다 AI 콘텐츠를 활용할 수 익화 방안과 활용 방법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에는 자체 개발한 한국어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 '마능AI'가 활용된다. 마능AI는 한글 프롬프트로 이미지와 영상, 음악, 효과음, 음성 등을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GS(굿소프트웨어) 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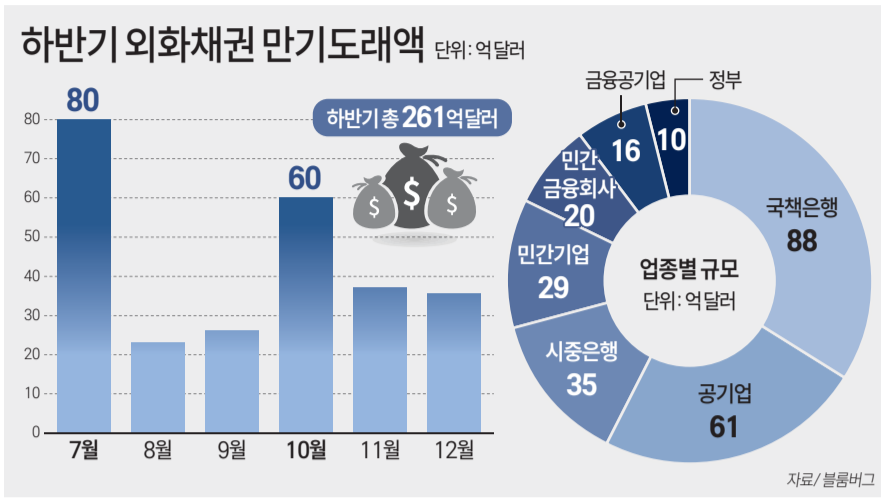
마능스쿨은 2023년 AI 예술 교육을 시작해 입문 과정부터 활용 과정까지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수강생은 2천명 이상이다. 마능스쿨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민간 자격인 '마능AI활용전문강사' 과정도 운영 중이다.

마능스쿨 관계자는 "AI 도구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아도 누구나 시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마능스쿨은 수익을 보장하기보다, 배운 기술을 부업이나 N잡으로 연결해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민 수습기자 kbm@

글로벌 큰손 몰린 한국채권, 하반기 美 금리 변수에 '긴장'

국내 기업 외화채권 발행 흥행
하반기 외화채권 시장 부담 증가
벤치마크 금리·가산금리 부담에
자금 조달 비용 높아질 가능성



채권은 5년 만기 5억달러(약 7700억원) 규모의 단일 트랜치(만기 구조)로 발행됐다.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에 0.9%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총 주문 규모는 발행액의 네 배 수준인 20억달러어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리는 최초 제시금리 대비 0.3%포인트 축소된 수준에서 최종 발행하기로 결정됐다.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똥찰남'으로 통하던 국내 기업들의 얼굴에 햇빛 그림자가 드리웠다.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새로운 물가 상승 요인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서다. 11월 중간선거에 따른 변동성도 우려된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한국 공기업과 기업·금융기관이 갠야할 외

화채권은 261억달러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22% 많다. 특히 7(80억달러), 10월(60억달러)에 전체 만기 물량의 54%가 집중돼 있다.

업종별로는 국책은행이 약 88억달러로 가장 많다. 이어 공기업(61억달러), 시중은행(35억달러), 민간기업(29억달러), 민간금융회사(20억달러), 금융공기업(16억달러) 정부(10억 달러) 등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하반기 조달 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

가장 큰 걱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이다. 케빈 위시 연준 의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졌으며, 기대 인플레이션도 내려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시

장의 예상과 엇박자를 내는 발언이지만, 위시 의장은 통화정책에 대한 예단을 경계했다.

새로운 물가상승 요인도 시장을 짓누를 전망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내린 점은 물가 하락 요인이지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새로운 물가 상승 요인도 존재한다.

그는 기업들의 가격 결정 방식도 인플레이션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토머스 바킨 미국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아이디어 페스티벌' 행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안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커지고 있어 비용 상승분을 얼마나 제품 가격에 전가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물 크레딧(신용도)도 개선되고 있고 투자 수요도 많아만 가는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후퇴와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우려로 벤치마크 금리의 하방이 제한되는 가운데, 역사적 저점까지 축소된 가산금리 역시 추가 타이밍(투자자 입장에서 낮은 금리라도 투자 의사를 보임)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부담은 있다"고 전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도 하반기 투자적격등급(IG) 스프레드의 완만한 확대를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다. JP모건은 연말까지 미국의 IG 스프레드가 85bp(1bp=0.01%포인트)에서 95bp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HSBC는 미국 IG 및 아시아 IG 스프레드가 각각 10~20bp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 기업들이 갠야할 돈이 4분기에 집중되는데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맞물려 있어서다. 이는 시장 소화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주혜원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과 김윤경 채권분석부장은 "역사적 저점에 있는 스프레드 레벨이 추가 축소될 여력은 제한된 반면 금리 변동성 확대·공급 부담·위험회피 심리 등에 따른 스프레드 확대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큰 비대칭적 구조다"라면서 "발행자들은 시장 변동성 및 투자수요 여건을 감안해 발행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라고 했다.

한편 상반기 한국계 외화채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420억달러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326억달러)보다 약 29%(94억달러) 많다. 만기 도래분을 제외한 순발행 규모는 111억달러를 기록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거래소,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50곳 전망

이달부터 상장 유지 요건 강화
'동전주 퇴출' 기준도 손질

코스닥 출범 30주년을 맞아 시장 저평가 해소 일환으로 부실기업 퇴출 정책이 하반기부터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 폐지되는 코스닥 상장사가 올해 50개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성천 한국거래소 공시제도팀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 커넥트 2026'에서 부실기업 퇴출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자로 나서 "이달부터 동전주와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되는 데 따라 상장폐지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전반부터 상장 유지를 위한 시총 및 추가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상장사의 시총이 코스피에서 300억원, 코스닥서 200억원을 일정 기간 밑돌면 상장폐지 사유를 충족하게 된다.

김 팀장은 추정치임을 전제로 "코스닥에

서 시총 기준 미달로 올해 상장 폐지될 종목은 50개 내외로 예상 중"이라며, "아직 코스닥에서 (강화된)이 기준으로 폐지된 종목은 없으나, 다음달 첫 사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추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추가가 1천원을 상회해야 하는 '동전주 퇴출' 규정도 기업들이 우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김 팀장은 "한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벗어나기가 더 어렵도록 이번에 강화됐다"며 "상당수 기업이 자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총이나 동전주 요건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없다. 요건에 해당하면 바로 상장 폐지된다"라며 "2회 연속 감사 의견 미달인 경우에도 이의신청 없이 상장 폐지하게 한 점 역시 이번에 강화된 요소"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종

목 수는 각각 9개, 13개다. 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수는 각각 9개와 35개였다.

한편 바이오·AI·우주 등 기존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로봇·K-콘텐츠·사이버보안 분야에도 맞춤형 심사기준을 이번에 도입하는 데 대해 자금 조달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석우 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팀장은 "각 산업과 기술 특성에 맞는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예측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 산업 육성 및 자금 조달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주관사의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고, 특히 전통 제조업과는 다른 업종에 대한 심사로 기업공개(IPO) 시장의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에는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광산 등 추가 혁신 업종에 대한 질적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 godhe@

코스닥 혁신기업 키우고 부실기업 퇴출 강화

기술특례기업 상장·사후관리 확대
혁신산업 맞춤형 심사·저PBR 관리

출범 30주년을 맞는 코스닥시장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부실기업은 퇴출을 앞당기고, 성장기업은 상장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며 '신뢰 회복'과 '혁신기업 육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한다. 전날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 데 이어 기술특례상장 사후관리 강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복수의결권주식 상장 허용 등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을 시행하며 시장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 상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해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된다. 지금까지 기술특례·이의 미실현 특례상장 기업은 일정 기간(3~5년) 매출액과 대규모 손실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 적용을 유예받았지만,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와 미래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술특례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주된 사업목적은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장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특례상장의 전제가 된 기술력과 성장성이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이날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혁신기업을 위한 상장 지원도 확대된다. 바이오와 인공지능(AI)·우주·에너지 분야에 질적심사기준을 도입하고,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에도 맞춤형 기준을 추가 신설한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거래소는 저PBR 기업 공표제도 근거를 상장규정에 마련했다. 동일 업종 내 PBR이 2분기 연속 하위권인 기업을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공표 대상에서 제외해 자발적인 밸류업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세부 기준은 이달 중 별도 지침으로 공개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육성법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법인 상장이 허용된다는 내용을 상장규정에 반영했다. 대상은 보통주이며, 최대주주 외에 의결권 기준인 '최다의결권자' 개념을 신설해 의무부유와 경영안정성 심사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는 복수의결권 구조의 적정성과 의결권 남용 방지장치도 함께 심사한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과 함께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상장폐지 제도 개편도 본격 적용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KSD나눔재단, 취약아동 의료비 1억 후원

중증·희귀·정신질환 아동 26명 지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이 지난 1일 초록우산에 취약계층 아동 의료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재단과 초록우산은 다문화·탈북·난민 등을 포함한 전국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4~5월 심사를 진행해 중증·희귀·정신질환

아동 26명을 선정해 각각 300만~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기로 했다.

이윤수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우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치기를 희망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KSD나눔재단은 2009년 설립됐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장학·



이윤수 KSD나눔재단 이사장(왼쪽)과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교육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공정위, SK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 8700억 기술·금융 지원

SK 7개 계열사 상생협약 참여
1·2차 협력사 대금 조건 개선
SKT, 2일 내 전액 현금 지급
소부장 실증시설 무상 제공
4300여 개 협력사 수혜 전망

SK와 1·2차 협력사들 간 상생협력 혜택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흘러들어갈 전망이다. 대금 지급 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총 87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SK텔레콤타워에서 열린 'SK-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이코플랜트, SK지오센트릭, SK실트론, SK AX, SK인텔릭스 등 7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지난달 29일 삼성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두 번째다.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SK텔레콤타워에서 열린 'SK-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

◆ 2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인센티브 유인책 마련

이번 상생협약의 핵심은 SK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다. 대금 지급 조건이 중소기업의 유동성 및 안정적 기업 운영과 직결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SK는 1차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현금성 결제 원칙 준수와 상생결제 방식의 대금 지급을 유지·확대한다. 특히 SK텔레콤은

'대금지급바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마감 후 2일 이내에 대금을 100% 현금으로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1·2차 협력사 역시 하위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생결제방식 도입·확대하기로 했다. SK는 대금 조건 개선에 성실히 동참하는 협력사에게 '협력사 등록·갱신 시가점 부여', '동반성장펀드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 SK하이닉스 중심 8700억 투자... 실증 검증용 시설 구축, 무상 제공

첨단 기술력이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금융 지원책도 신설·확대된다.

SK하이닉스는 정부, 지자체와 함께 약 8700억 원을 투자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사의 양산 검증기간 단축과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실증 검증용 시설인 'Trinity Fab'을 구축하고, 이를 소부장 협력사에게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또 협력사와 공동 R&D 추진 시 실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지원금을 제공해 과감한 연구개발을 돕는다. 나아가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자금을 투입해 유망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분투자를 진행하는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4300여 개 협력사 수혜 예상... 공정위 "상생협력 문화 지속 유도"

이번 협약으로 SK 거래망에 속한 약 4300여 개의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SK는 이번 상생협약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지속적으로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SK와 1·2차 협력사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약은 SK의 성과가 중소기업들로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해 기업 간 상생의 선순환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1·2차 협력사 역시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상생의 성과가 협력사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도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반칙하는 기업에는 선진국 표준에 맞는 엄정한 규율이 뒤따르겠지만, 혁신에 집중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OECD "부동산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여야"

2026 보고서서 세계개편 제인
주거이동성 높여 시장마찰 완화
법인세 단일세율 전환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거래세 중심의 부동산 과세 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놨다. OECD는 거래세 비중이 줄면 국내 주거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보유세 비중이 늘면 조세 누진체계 등 공정성 확보도 가능하다고 봤다.

OECD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재산 세제에 대해, 부동산 세수가 OECD 대비 높은 편이지만 거래세 비중이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반해, 왜곡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보유세 비중은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부동산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9.4%로, OECD 평균인 56.0%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어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이 주거이동성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택시장 마찰을 완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란 견해를 제시했다.



프랑스 파리 소재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 /OECD 홈페이지 갈무리

또 "실거주가 아닌 주택에 대해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은 조세 누진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전체 세수의 15.5%에 달하는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4단계 누진구조로, OECD 여타 회원국과 비교해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회원국 38곳 가운데 3단계 이상의 누진구조를 가진 나라는 한국 등 4개국뿐이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의 32.5%가 비과세 대상이라며, 조세지출 준비를 통해 비과세 근로자를 축소하고 과세 기반을 확

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본이득에 대해 균일 과세를 지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국내 기업승계제도가 상속세 회피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여타 OECD 국가와 달리, 상속세를 수혜자가 아닌 상속 자산에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속세 제도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상황 관련해서는 12·3계업과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및 반도체 호황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25년 계업으로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확장재정 등으로 회복됐다"며 "특히 소비쿠폰은 소비·소상공인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며 "2026년초 반도체 등 수출 호조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중 중동 전쟁이 발발했으나, 신속한 위기 대응 조치로 부정적 영향 축소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재정적 비용을 수반하고 인센티브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발전 5사, 석탄발전 폐지 지역 충격 줄인다

남부발전 주관, 활용 용역 착수
지역경제·고용 안정 방안 마련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국내 발전 공기업들이 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막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남부발전은 비롯한 발전 5사는 지

난 달 30일 서울 발전회사협력본부에서 석탄발전 인프라의 효율적 재활용과 유류 인력의 안정적인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석탄발전 인프라 및 인력 활용 방안 마련 용역'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남부발전이 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발전 5사가 함께 참여한다. 용역 수행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총 12개월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본소득, 농촌 되살리는 해법 되도록 보완"

송미령 장관, 정선 고한리 현장 점검
인구 1847명·가맹점 167곳 증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및 농촌마을 재생'과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는 기본소득 등이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되살리는 해법으로 자리 잡도록, 현장을 계속 살피고 정책의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상황·성과 등을 점검했다. 또 마을 환경과 빈집·노후주택 등의 정비를 통해 마을이 재생·활성화된 사례를 둘러보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정선군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인구(+1847명, 5.6%)와 가맹점 등록(+167개소, 8.7%)이 늘어났다. 또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신규 창업(업종변경 포함)도 이어져 약국·마용실·의

류점·베이커리 등 112개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특히 ▲귀촌한 약사의 약국 개설, 폐업된 가게 인수 후 차진집 창업 ▲8년 전 폐업한 노래연습장 재창업 등과 같이 한동 안 면 단위 지역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창업 사례가 생겨났다. 북평면의 경우, 면 지역 창업지원 사업 1호점이 문을 여는 등 면 단위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정선읍의 한 빵집은 소외계층·복지시설 대상 후원을 확대하는 등의 미담 사례도 전해졌다. 간담회가 열린 마을호텔 18번가의 경우, 빈집·노후주택·상점 등이 많은 마을 골목을 주민 주도로 환경 개선을 시작하고, 이후 행정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빈집 등을 리모델링했다. 이후 음식점·카페 등 다양한 상점과 연계해 마을호텔 18번가라는 브랜드를 탄생시킨 곳이다. 많은 관광객과 마을·단체에서 견학을 위해 찾는 농촌 재생의 우수사례가 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진공, 선사 지원 중견까지 확대

2차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안 발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 선사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지원 범위를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중견선사까지 확대하고 부채비율 등의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진공은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2026년 중소기업 CEO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제2차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안을 발표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경영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해 온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책이다. 앞서 제1차 프로그램 운영 결과 총 3887억 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차 지원안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진입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지원안의 핵심은 더 넓게, 더 가볍게라고 공사는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중소기업으로 제한됐던 지원 범위를 신규 중견선사까지 넓혔다. 또 중견기업 진입 이후에도 3년간 지원 자격을 인정하는 '성장사다리' 제도를 마련해 성장 단계에 있는 선사들을 폭넓게 아우른다.

사업 참여 조건도 완화했다. 부채비율 기준을 기존 500%에서 600%로 조정해 더 많은 선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자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K-힐링 편의점 이야기 ”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2

Always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2 (나무옆의자 2022)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박예슬 | 연출 승운 | 작곡·음악감독 서진영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티켓링크 | 문의 02-332-4902

교육부, 학교 독서교육 강화... 초3~4·중1·고1 '집중학년' 지정

학생 독서율 하락·문해력 저하 대응
수업 중심 독서교육 선도학교 운영
매년 1000개 교과수업 모델 발굴

학생 독서율 하락과 문해력 저하에 대응해 교육부가 교과 수업과 독서를 연계하는 학교 독서교육 강화에 나선다. 초3~4, 중1, 고1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운영하고, 2030년까지 매년 1000개의 독서 연계 교과수업 모델을 발굴한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질문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독서를 학교 수업과 생활 속에 체계적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학생 독서량 감소와 문해력 저하 징후를 정책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2025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청소년 독서량은 2023년 36.0권에서 2025년 31.5권으로 줄었고, 평일 독서시간도 같은 기간 82.6분에서 70.3분으로 감소했다. PISA



세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22에서는 한국 학생의 '정보의 사실과 의견 식별 능력'이 25.6%, OECD 평균 47.4%보다 낮았다.

◆ 초3~4·중1·고1 집중 지원

이번 방안의 핵심은 독서를 교과 수업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업 중 교과 관련 독서를 읽고 탐구·토론 등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매년 1000개의 독서 연계 교과수

업 교수·학습모델을 공모해 발굴한다.

수업 중심 독서교육 선도학교도 운영한다. 기존 독서교육 선도학교를 수업 중심 모델로 전환해 2030년까지 매년 40개교를 지정한다. 선도학교는 독서 기반 수업과 교과 연계 독서 프로젝트 수업을 16차시 이상 운영해야 한다.

초3~4, 중1, 고1은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된다. 초3~4는 '읽기 학습'에서

학습을 위한 읽기'로 넘어가는 시기이고, 중1은 교과 학습량 증가와 함께 비판적 사고력이 요구되는 시기다. 고1은 진로와 전공 탐색이 본격화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했다.

◆ 독서로·학교도서관 기능 강화

학교 일과 중 책을 읽는 문화도 확산한다. 교육부는 '매일 아침 10분 함께 책 읽기' 등 학교 자율 프로그램을 지원해 올해 초·중·고 10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체 초·중·고로 확대한다. 방학 중에도 독서가 이어지도록 2027년부터 모든 학생에게 월 5권 이내 전자책 대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 독서교육 플랫폼도 고도화한다. '독서로DLS'에는 AI 기반 도서검색 기능을 도입하고, 학생이 '독서로'에 기록한 독서활동을 나이스(NEIS)와 연동해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란에 자동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도서관 역할은 강화한다. 2024년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8.4%까지 높아졌지만, 사서교사 배치율은 16.47%에 그친

다.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장서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사서교사 배치율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전담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 법·제도 기반 정비

교육부는 독서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독서교육을 통한 문해력 함양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도 독서교육 전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교육부는 2026년 독서교육 추진 예산으로 134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2027년 소요 예산안은 253억6000만원 규모로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정 의무교육 등에 밀려 안정적인 시수 확보가 어렵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해 학교 교육 전반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 학교 과학실 'AI·디지털' 입는다

서울시교육청 참여형 탐구수업 확대
학교당 1개 이상 지능형 과학실 구축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한다. 디지털 센서와 데이터 분석 도구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탐구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학생 참여형 탐구수업을 확대하고 미래형 과학·수학·융합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K-STEM 기반 AI·디지털 미래형 과학교육'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K-STEM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 기반으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탐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참여형 탐구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미래형 교육 정책이다.

핵심은 학교별 디지털 탐구 환경 구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당 최소 1개 이상의 지능형 과학실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2027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능형 과학실에는 디지털 센서, 데이터로거, 디지털 현미경, AI 분석 도구 등이 지원된다.

AI·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관찰과 실험, 분석, 토론으로 이어지는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학교 간 디지털 탐구도구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K-STEM Bank'도 운영한다. 융합과학교육원, 11개 과학교육센터,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등이 보유한 과학·수학·AI·SW 교구와 탐구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사들은 수업에 필요한 디지털 탐구도구를 검색하고 대여할 수 있다.

교사 연수도 병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탐구도구가 실제 수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디지털 과학탐구 수업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현장 교사 중심의 실천 조직도 꾸린다. 서울시교육청은 K-STEM Bank 활용 수업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K-STEM 과학·수학·정보 CREW'를 운영한다. 교사단은 디지털 탐구도구를 활용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우수 사례와 콘텐츠 등을 제작해 공유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장비 보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과학·수학·융합 수업 방식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총원 절차 착수

산업재해 예방·노동권 보호 강화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해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총원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추진되는 핵심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밝힌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추 지사는 지난 6월 24일 누리소통망을 통해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으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도 120대 정책 가운데 첫 번째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7급 공채 채용 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채용 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2026년 하반기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을 단계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2027년 1월부터는 이번

공채 인원 7급 노동직 25명을 포함해 8·9급 경력경쟁채용, 시·군 전입 등을 통해서 현장 감독 인력을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170명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한다. 채용된 지방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의 직무교육과 사법경찰관 지정 절차를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기본교육은 12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도는 교육과 현장 배치 준비를 마친 뒤 2027년 상반기부터 지방노동감독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말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앞서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채용, 직무교육 준비 등을 추진해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 노동감독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영세 사업장 등 지역 맞춤형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개선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 노동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서울시, '서울런' 지원대상 대폭 확대

소득기준 등 완화... 5만명 추가 이용

서울시가 온라인 교육복지 플랫폼 '서울런' 지원대상을 기존 12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확대한다.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등을 새로 포함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일부터 지원대상을 넓혀 서울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약 5만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런은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1대1 멘토링,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 교육복지 플랫폼이다.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넓어진다. 새 지원 대상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국가보훈

대상자 손자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등이 포함된다. 다자녀가구는 3자녀 이상이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서울런 소득 기준을 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같은 중위소득 80% 이하로 맞췄다. 교육복지 정책 간 지원 기준을 맞춰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서울런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재혼가정의 자녀 산정 기준도 정비해 다양한 가족 형태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는 향후 사업 운영 결과와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2자녀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런 진로캠퍼스 IoT 과정(IoT(모디플러스) 과정에서 센서와 모듈을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을 체험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런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서울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가입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 확대는 소득 기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교육 지원에서 빠질 수 있었던 청소년까지 서울런 이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 대상자가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멘토링,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과 자격 심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내달 '2026 그린에너지' 개최

인천광역시시는 오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환경·에너지 산업 전문 전시회인 '2026 그린에너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5회째로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 ㈜지엠이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KOTRA, 인천환경공단, 인천대학교가 공동 주관한다. 전시회는 기업과 정부,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는 B2G 2B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청정·재생에너지, 에너지 인프라, 친환경 플라스틱, 탄소중립, 기후테크 등 환경·에너지 산업의 혁신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인다. 관련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패러다임을 조망할 수 있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술 혁신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행사는 130개 사가 참여해 첨단 기술과 사업 역량을 선보인다. 수출 및 구매 상담회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기업 판로 개척을 돕고 또한 '그린에너지텍' 및 '국제 친환경 플라스틱' 콘퍼런스가 동시 개최되어 산·학·연 전문가들이 최신 산업 동향과 정책을 공유하는 교류 플랫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회 참가 신청은 7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전시회 사무국 또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대 시장은 "2026 그린에너지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산업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라며 "참가기업과 관람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321@

홈쇼핑 제작부터 매출까지... AI로 '효율혁신'

NS홈쇼핑, AI 쇼호스트로
협력사 부담 완화, 운영 효율화
롯데홈쇼핑 '루시톡라이브'
GS샵, 가상모델 '제이' 판매 성과
AI 챗봇 등으로 상담 자동처리도



GS샵 AI모델 '제이'가 의류 '모르간' 방송에 사용된 모습. /GS샵

홈쇼핑 업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방위로 도입하며 비용 효율화와 사업 모델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쇼호스트, 모델, 콘텐츠 제작, 고객 서비스 등 방송 전 과정에 AI를 결합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모양새다.

2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주요 홈쇼핑 업체들이 AI를 방송 제작부터 마케팅, 고객 서비스까지 전 과정에 적용하며 활용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NS홈쇼핑은 지난 5월 '실속고등어' 판매 방송에 AI 쇼호스트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약 10분간 진행된 이 방송에서 AI 쇼호스트는 어색함 없이 상품 구성과 할인 혜택을 또렷하게 짚어내며 상품 소개를 맡았다. NS홈쇼핑 측은 짧은 편성 방송의 특성상 편성 효율과 제작비 부담 완화가 중요하며, AI 도입을 통해 협력사의 부담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상생형 방송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찬 NS홈쇼핑 TV콘텐츠사업본부

이사는 "편성효율과 제작비 부담완화가 중요한 10분 방송에 새로운 콘텐츠방식을 적용해 협력사 부담을 줄이는 '상생형 방송모델'을 구현하려 했다"며 "앞으로도 AI 기반 콘텐츠 운영방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 쇼호스트와 모델을 활용한 마케팅은 이미 업계 전반에서 뚜렷한 매출 증대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2024년부터 가상 쇼호스트 '루시'를 내세워 운영 중인 패션 프로그램 '루시톡라이브'는 누적 주문액 약 500억원 을 기록했다. 이는 동시간대 일반 방송 대비 50% 높은 주문 실적이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엘라이브'에서 음성 AI가 진행하는 방송은 4회 만에 누적 조회수

10만 회를 돌파하며 가전 카테고리 주문액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성장시켰다.

GS샵 역시 올해 초 봄-여름(SS) 패션 특집 방송에 AI 가상 모델 '제이'를 투입해 독특한 재미를 봤다. 모르간, SJ와니, 코어 어센틱 등 단독 브랜드 방송에 착용 모델로 출연한 제이는 실제 모델과 번갈아 등장하며 고객 유입을 이끌었고, 방송 기간 모르간 33억원, 쇠내추림 14억원, 제이슨 우 31억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GS샵은 AR 기술을 결합해 AI 모델이 실제 스튜디오에 있는 것처럼 구현하는가 하면, 남성 라인 화보 제작에도 AI를 활용했다.

AI의 역할은 화면에 나서는 모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본 작성, 세트 디자

인, 조명 설계, 자막 검수 등 후방지원 영역으로도 빠르게 확대 중이다. GS샵의 올해 1분기 AI 기반 콘텐츠 제작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현대홈쇼핑 역시 AI 슷품 자동제작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에만 2000편 이상의 영상을 제작했으며, 방송에 삽입되는 콘셉트 이미지를 AI로 생성해 제작 시간을 이를 이상에서 1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와 고객 편의성 대폭 개선도 AI 도입의 주요 성과다. 현대홈쇼핑은 협력사 대상 AI 챗봇을 도입해 전화와 게시판 상담을 자동 처리함으로써 임직원의 관련 업무량을 약 80% 줄였다. 롯데홈쇼핑은 고객이 AR로 말한 주소를 문자화하고 AI가 자동 검수하는 '주소북' 솔루션을 적용해 상담 처리 속도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송출 수수료 부담과 TV 시청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AI 도입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제작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모바일과 슷품 중심의 젊은 고객층을 유입시키는 등 실질적인 매출 지표로 효과가 증명되고 있어 향후 AI 활용 범위는 더욱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롯데웰푸드 설레임 모델에 기안84 9월엔 '설레임런' 열어

오는 10일 '설레임런' 티켓 판매

롯데웰푸드가 아이스크림 브랜드 설레임의 새 모델로 방송인 겸 웹툰작가 기안84를 발탁하고 소비자 참여형 마케팅을 강화한다. 오는 9월에는 3000명 규모의 러닝 행사 '설레임런'도 연다.

롯데웰푸드는 경기도 미사경정공원에서 오는 9월 5일 '설레임런'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대회는 3000명이 참가하는 10km 정시 기록 측정 대회로 진행되며, 참가티켓은 7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선착순 판매된다. 참가자에게는 러닝 티셔츠와 선글라스, 기록 측정용 칩, 완주 메달 등이 제공된다.

행사에서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달리는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쿨링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기안84도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롯데웰푸드는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설레임 구매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후 인증을 통해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설레임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BBQ가 인도 벵갈루루에 HSR 레이어아웃점과 코라망갈라점을 동시에 오픈하며 인도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1호점 전경. /제너시스BBQ

"닭가슴살로 건강 챙기고 파우치·키링 받으세요"

롯데마트·슈퍼, 하림 굿즈 기획세트
이달 한 달간 전국 매장에서 한정 판매

롯데마트·슈퍼는 하림과 협업을 미니 파우치와 키링을 함께 구성한 '하림 닭가슴살 블랙페퍼 굿즈 기획세트'를 단독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7월 한 달간 전국 롯데마트·슈퍼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롯데마트·슈퍼에 따르면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헬시플레이저(Healthy Pleasure)'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닭가슴살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닭가슴살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10.2%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8.4% 늘었다.

'하림 닭가슴살 블랙페퍼'는 12시간 숙성 공법을 적용해 식감을 살렸으며, 흑후추를 더한 시즈닝으로 샐러드 등 다양한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마트 제타플러스점실에서 롯데마트·슈퍼 직원이 '하림 닭가슴살 블랙페퍼 기획세트'를 홍보하고 있다. /롯데쇼핑

식단에 활용할 수 있다. 개별 포장 방식으로 보관과 취식이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기획세트에는 미니 파우치와 키링도 함께 제공된다. 미니 파우치는 운동이나 야외 활동 시 이어폰, 립밤 등 소형 소지품을 휴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서현 기자

이마트24, 삼각김밥 원재료 품질 개선

이마트24는 삼각김밥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핵심 원재료를 개선한 리뉴얼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리뉴얼은 더큰삼각 시리즈를 포함한 삼각김밥 25종에 적용되며, 7월부터 4주간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이마트24는 최근 간편식 소비가 가격보다 맛과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가격 인상 없이 김과 밥, 속

재료 등 핵심 원재료의 품질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리뉴얼을 통해 김의 참기름 사용량과 밥에 들어가는 통깨를 기존보다 늘려 고소한 풍미를 강화했다. 참치마요 삼각김밥에는 동원참치를 사용하고 참치와 마요네즈 배합을 조정했으며, 불고기와 제육 등 육류가 들어가는 제품에는 국내산 한돈 양념육을 적용했다. /김서현 기자

롯데시네마-메가박스 인수합병 '무산'

'독자 생존'으로 방향 전환

국내 극장가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던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대형 인수합병(M&A)이 끝내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백지화됐다. 팬데믹 이후 침체에 빠진 영화관 산업을 구원할 '빅딜'로 기대를 모았으나, 양사는 거대한 몸집을 합치는 대신 각자의 무기를 갈고닦는 '독자 생존'으로 방향을 틀었다.

롯데쇼핑은 1일 공시를 통해 롯데컬처웍스와 콘텐츠리중앙이 지난해 맺었던 합병 추진 업무협약(MOU)이 기한 만료로 종료되면서 통합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고사 직전의 영화 산업을 뒤늦게 최대 규모의 연합 전선으로 화제를 모은 지 1년여 만의 일이다.

이번 합병 무산의 결정타는 중앙그룹

/신원선 기자 tree6834@

측의 재무적 부담과 콘텐츠리중앙의 회생절차 개시 등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협상을 지속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만약 두 회사의 결합이 성사됐다면 국내 멀티플렉스 지형도는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4년 집계 기준, 국내 상영관 점유율은 CJ CGV가 43.8%로 독주하는 가운데 롯데시네마(29.8%)와 메가박스(24.9%)가 그 뒤를 쫓고 있었다. 두 회사의 스크린을 합치면 무려 54.7%로 단숨에 업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결렬로 인해 극장가는 당분간 기존의 'CGV-롯데-메가박스' 3파전 체제를 이어가게 됐다.

던스트, 글로벌 홀세일 사업 확대

글로벌 쇼룸 에이전시 '247' 파트너십
내년 프리 스프링 시즌부터 확대

LF 자회사 씨티닷컴의 캐주얼 브랜드 던스트(Dunst)가 글로벌 쇼룸 에이전시 '247'과 홀세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27 프리스프링(Pre-Spring) 시즌부터 글로벌 홀세일 사업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247은 밀라노를 거점으로 파리, 뉴욕, 코펜하겐, 도쿄 등 주요 패션 도시에서 브랜드를 소개하는 글로벌 쇼룸 에이전시다. 브랜드 전략 수립과 유통 확대 등을 지원하며 세계 주요 리테일러 및 바이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던스트는 2019년 LF 사내벤처 프로젝트 출범했으며, 2022년부터 글로벌 홀세일 사업을 본격화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30여 개국에서 100여 개 글로벌 리테일 파트너와 협업하고 있으며, 파리와 뉴욕 패션위크 기간 쇼룸을 운영해 해외 바이어들에게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회사는 홀세일 사업이 최근 4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홀세일 규모는 같은 기간 약 70%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했다. /김서현 기자

제너시스BBQ 인도 1·2호점 동시 개점

퀵서비스레스토랑 형태로 운영

제너시스BBQ가 인도에 첫 매장을 열며 현지 외식시장 공략에 나섰다.

제너시스BBQ는 인도 벵갈루루에 HSR 레이어아웃점과 코라망갈라점을 동시에 개점하며 인도 시장에 진출했다고 2일 밝혔다. 회사는 현지 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하이데라바드와 첸나이, 벨로르 등으로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두 매장은 치킨과 버거를 중심으로 떡볶이, 김치볶음밥 등 한국식 메뉴를 함께 판매하는 퀵서비스레스토랑(QSR) 형태로 운영된다. 현지 식문화를 반영해 모든 치킨 메뉴에는 국제 할랄 인증인 JAKIM 기준을 적용했으며, 베지테리언 버거와 콜리플라워 메뉴 등 채식 메뉴도 함께 선보인다.

BBQ는 인도 최대 IT 산업 중심지인 벵갈루루를 거점으로 젊은 소비층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회사는 K-콘텐츠 확산에 따라 현지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현지 맞춤형 메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BBQ 관계자는 "인도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글로벌 핵심 시장 가운데 하나"라며 "현지 소비자의 식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메뉴와 운영 전략을 바탕으로 K-치킨의 매력을 알리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K-뷰티기업, 해외 거점 확대... '체험·B2B·데이터' 차별화

**올리브영 美 매장 K-쇼핑 결합
디엘스킨 9월 'K뷰티 하우스' 출범
화해 데이터 기반 파트너십 확대**

K뷰티 기업들이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핵심 상권에 직접 오프라인 거점을 세우고 있다. 판매 매장을 꾸미고 체험형 행사를 진행하는 데 이어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 확장, 데이터 기반 브랜드 검증 등을 실행하는 전략 가치를 마련해 중소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고 있다.

2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CJ 올리브영은 미국 매장에 'K쇼핑' 경험을 결합하며 글로벌 소비자를 적극 공략한다.

올리브영은 오는 8월 14일(현지 시간) 미국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KCON LA 2026'과 연계해 '올리브영 페스타 LA 2026' 막을 올린다.

이 행사는 약 1422평 규모의 초대형 뷰티 축제에 올리브영은 서울 명동, 강남, 성수 등 K뷰티 대표 상권을 그대로 구현할 예정이다. 총 55개 브랜드를 내놓으며 한글 표지판, 버스 정류장 등 서울의 풍경을 연출한다. 방한 외국인 중심의 'K쇼



오는 8월 미국에서 초대형 K뷰티 축제 '올리브영 페스타 LA 2026'가 열릴 예정이다. /CJ 올리브영



디엘스킨은 지난달 24~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K뷰티 하우스'의 사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디엘스킨

핑'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던 미국 현지에서 마치 서울에 온 듯한 몰입감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입점 브랜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가 직접 제품과 정체성을 알리는 강연 프로그램 '뷰티&헬스 토크 다이브'를 기획하고 있다. 브랜드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퓨처커넥트 라운지'도 설치한다.

올리브영은 올해부터 미국에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본격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미국 매장 1호점 패서디나점, 2호점

센추리시티점 등을 구축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K뷰티와 K쇼핑을 다양하게 확산해 국내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기업과 정부가 협업해 K뷰티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창구도 문을 연다.

오는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마켓 센터(CMC)에 K뷰티 플래그십 허브 'K뷰티 하우스'가 공식 출범한다. K뷰티 하우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디엘스킨이 운영하는 가운

데,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 사업자 연계, 미디어 및 인플루언서 초청 등이 이뤄진다. B2B 사업자를 주요 고객층으로 설정해 글로벌 유통사들이 K뷰티 제품을 가까이서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디엘스킨 측은 "패션 위크, 메이크업 쇼 등이 열리는 글로벌 패션뷰티 플랫폼 CMC에 K뷰티가 진입한 것은 최초 사례"라며 "미국 내 K뷰티의 달라진 위상을 방증하며 우수한 국내 뷰티 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계속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K뷰티 데이터를 집약한 중소 브랜드 상생 생태계가 조성됐다.

뷰티 플랫폼 화해를 운영하는 화해글로벌은 지난 5월 중국 상하이 흥취안루 코리아타운에 첫 오프라인 단독 매장 '화해'를 선보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화해가 축적한 44만 개 제품 데이터와 1020만 개의 소비자 후기를 기반으로 중국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만 정교하게 선별해 소개한다.

이후 이 매장은 하루 평균 2000명의 방문객수, 300개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현지 인플루언서들 중심의 온라인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어 화제성까지 입증했다.

화해는 상하이 매장에서 확보한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현지 유통사를 대상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뷰티 업계 관계자는 "K뷰티 오프라인 거점 다변화는 일방향적 수출 공식이 깨지고 현지 맞춤형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SK바사, 게이트재단 'ROTOR 프로젝트' 주관

**AI 기반 백신개발 최적화 플랫폼 구축
미래 감염병 대응·국제사회 보건 기여**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게이트재단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임상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개발 과제인 'ROTOR 프로젝트'에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게이트재단은 자체 펀딩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하며 해당 과제에는 국제 보건 기구(PATH)와 글로벌 IT 기술 컨설팅 기업 슬라립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ROTOR 프로젝트는 백신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면역원성 및 과학적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연구개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개발 전략을 최적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다양한 백신 및 질환 분야에 폭넓게 활용 가능한 범용 플랫폼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PATH는 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검증함으로써 백신 개발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저소득 국가 백신 개발사들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백신 접근성 확대에 중점을 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러한 첨단 플랫폼이 미래 감염병 대응과 국제사회 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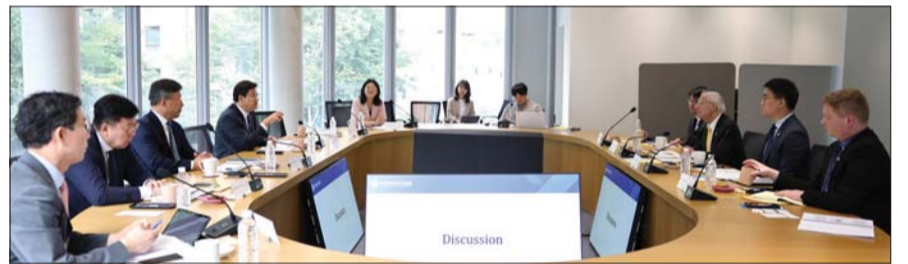
실제로 그동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국제백신연구소(IVI), 범미보건기구(PAHO), 글로벌백신면역연합(Ga

vi),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글로벌 공공보건 기관들과 협력하며 보건 인프라를 확장해 왔다.

최근에는 CDC와 주사형 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초에는 게이트재단 산하 연구 기관인 '게이트 MRI'와 신규 호흡기세포 융합바이러스 항체 의약품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지난 2월에는 유럽연합 산하 기관으로부터 팬데믹 패치형 독감 백신 개발 과제를 수주하기도 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백신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게이트재단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백신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캐나다 온타리오주-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업 협력회의'가 진행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협회, 韓-캐나다 산업협력 모색

온타리오주 빅터 피델리 장관 논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글로벌 제약바이오 무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캐나다 온타리오주-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업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빅터 피델리 경제개발부 장관이 참석해 캐나다와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캐나다 온타리오의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협력체(Acceleration Consortium, AC)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기술을 공유하

는 등 상호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빅터 피델리 장관은 협회 산하 AI신약연구원, 자율 실험실 등을 방문해 국내 인공지능 신약개발 연구환경과 혁신 역량을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캐나다 측은 자율 실험실 운영 현황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 유사 인프라 구축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한국은 우수한 연구 기반과 미래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고 캐나다 온타리오는 북미를 대표하는 인공지능과 생명과학의 혁신 거점"이라며 "양측의 강점을 잇는다면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애경산업 AGE20'S 퍼펙트 캡처 세팅 픽서

애경산업은 스킨 퍼스트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가 '시그니처 퍼펙트 캡처 세팅 픽서'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 제품은 메이크업을 처음처럼 유지하는 데 쓰인다. 메이크업 고정을 위한 피부 유분 관리, 수분 공급 등의 기능을 갖췄다. 5가지 펩타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 A 등의 성분이 불필요한 피지 분비를 개선해 깔끔한 피부 표현에 도움을 준다. 저중·고분자로 구성된 3중 히알루론산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수분막을 형성한다.

이와 함께 피부에 분사하는 즉시 피부 온도를 평균 4.1도(°C) 낮추는 냉각 효과까지 구현해 여름철 열감으로 인한 메이크업 무너짐을 줄일 수 있다. /이청하 기자

대웅제약, 중동·아프리카 '엔블로' 수출

8개국 1452억 규모 계약

대웅제약이 엔블로 수출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며 국산 블록버스터 약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대웅제약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아시노 파마 에이지와 중동·아프리카 지역 주요 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엔블로' 수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마일스톤을 포함해 한화 약 1452억원으로 '엔블로' 글로벌 수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대웅제약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아라크, 이집트 등 8개 국가를 공략한다.

/이청하 기자

엔블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대웅제약이 개발한 국내 최초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 억제제 계열 국산 신약이다.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하고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출해 혈당을 낮춘다. 혈당 강하는 물론 신장 질환, 심부전 등에서도 치료적 지점을 갖췄다. 기존 SGLT-2 억제제의 30분의 1을 밀도는 0.3mg의 저용량으로 뛰어난 약효를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엔블로 수출 계약은 국산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신약이 처음 중동·아프리카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엔블로가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국제약, '유레스코정' 글로벌 판매 본격화

파에스 파르마와 라이선스·공급 계약

동국제약이 '유레스코정'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동국제약은 지난 1일 스페인 글로벌 제약사 파에스 파르마와 '유레스코정' 라이선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계약금과 함께 최대 200만 유로(약 35억원)의 개발 및 판매 마일스톤이 포함됐다.

동국제약은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등 중남미 지역 13개 국가

에 향후 10년간 총 390억원 규모의 '유레스코정'을 공급한다. 파에스 파르마 해당 국가에서 제품 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허가 완료 후 발매할 예정이다.

유레스코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개량 신약으로, 타다라필 5mg과 두타스테리드 0.5mg을 하나의 정제에 처방한 세계 최초 복합제다. 전립선 크기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증상을 개선하는 이중 효과를 갖췄다.

/이청하 기자

100+

인공지능 (AI) 시대, 자산관리 전략도 달라져야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2026년 7월 9일(목) 오후2시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행사개요

- 행사명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 주제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도 달라져야
 - 일시 2026년 7월 9일(목)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 등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2026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선착순 100명, 택1)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5	<축사>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5~14:50	송홍선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AI와 자본시장, 기회와 위험
강연	14:50~15:20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15:20~15:50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 본부장
	15:50~16:20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교수
	16:20~16:50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삼성 감사페스티벌 막바지... 20% 환급에 구매 행렬

5일 종료, 환급신청은 9월까지
삼성스토어 방문객 75% 늘어

삼성전자 제품 가격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가 이번 주말 끝나면서, 막차를 타려는 소비자들이 삼성스토어로 몰려들고 있다.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진행 중인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이 오는 5일 종료된다. 행사 시작 이후 전국 삼성스토어 방문객 수는 행사 이전 대비 평균 75% 이상 증가했고 일부 매장은 최대 2배를 넘어섰다. 종료 직전인 이번 주말에는 방문객이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페스티벌은 행사 기간 삼성전자 가전·모바일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 고객들이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기간에 삼성스토어를 방문해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상담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제품 판매가 늘수록 소상공인 매출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행사가 끝나더라도 환급 신청 기한은

년 넘는다.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제품은 오는 9월 30일까지 삼성닷컴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배송이나 설치가 지연되더라도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행사 종료 후 약 2개월의 여유를 줬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신청일로부터 2주 후 구매자 명의의 '디지털온누

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순차 지급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경우에도 삼성닷컴에 접속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동일 품목당 2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데이코·하만 브랜드 제품과 소모품·액세서리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한편, 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 등 '제복 공무원'은 20% 환급에 더해 삼성전자 패밀리몰에서 구매 시 10% 추가 할인을 받아 사실상 30%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혜택 대상 제복 공무원은 군인 50만명을 포함해 총 7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는 "최대한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적용 기한을 여유 있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GC녹십자의료재단, 44주년 혁신 다짐

GC녹십자의료재단이 40여 년간 축적한 독자적인 노하우와 검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 수행하겠다는 혁신의지를 다졌다. 지난 1일 GC녹십자의료재단 '창립 제44주년 기념식'에서 허일섭 GC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C녹십자의료재단



JW이중호재단, 장학생 네트워킹데이

JW이중호재단은 최근 경기 과천에 위치한 JW사옥에서 '제3회 기초과학자 장학생 네트워킹데이'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제3회 기초과학자 장학생 네트워킹데이'에서 선배 장학생이 신약개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JW이중호재단



광동제약, 직원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광동제약이 임직원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하며 업무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과천 본사에서 '광동 플레이그라운드'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광동제약 AI 해커톤 현장. /광동제약



현대위아, 장애인 동행일자리 사업 동참

현대위아는 지난 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남형 장애인 동행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위아 이시현 HR문화실장(왼쪽부터), 경남은행 최진권 경영지원그룹장, 하나은행 김재정 수서역지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창근 경남동부지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위아



한국마사회, 경마 공정성 알리기 앞장

한국마사회가 '경마의 공정성' 알리기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최근 렛츠런파크 서울(과천경마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참관 행사를 가졌다. 마사회가 지난달 하순 실시한 '출발 현장 참관 프로그램'. /마사회

삼성·LG전자, AI 앞세워 A/S 고도화

서비스품질지수 공동 1위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가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 경험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수리 중심이던 사후관리(A/S)를 AI 기반 상담과 원격진단, 데이터 분석으로 고도화하며 서비스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가 '2026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가전제품 AS 부문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평가를 바탕으로

로 서비스 품질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가전제품과 휴대전화, 컴퓨터 A/S 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자제품 A/S 업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25년 연속 1위에 선정됐으며, 컴퓨터 A/S는 25년 연속, 휴대전화 A/S는 23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가전제품 A/S 부문 역시 통산 22회 1위로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LG전자는 가전제품 A/S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전문성과 적극성, 서비스 환경, 사회적 가치 등 주요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가전 서비스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차현정 기자 hyeon@

오뚜기 함태호 학술상에 오세욱 교수

33회 시상식, 식품위생 연구 성과

재단법인 오뚜기함태호재단은 지난 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한국식품과학회와 공동으로 제33회 오뚜기함태호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수상자는 오세욱 교수(사진)로, 식품위생·안전 분야 연구 성과와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 교수는 병원성 미생물 선택배지의 미국 특허 등록과 산업화를 통해 국내 식



품안전공인배지등재에 기여했으며, 식중독균의 신속 검출 및 제어 기술 연구를 수행해 국내 식품안전 관리체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 교수는 콜드플라즈마와 자외선(UV) 등 비열 살균기술을 포함해 150여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중앙대 언론동문회, 노효동 신임회장 추대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제14회 중앙 의혈언론인상 시상식

중앙대학교(총장 박세현) 언론동문회는 지난 1일 중앙대에서 '2026 중언회 정기총회 및 제14회 중앙 의혈언론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노효동(영아영문 88) 연합뉴스TV 보도국장이 신임 중언회장으로 추대됐다.

이종훈(불어불문 86) 직전 회장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됐다. 이 전 회장은 동아일보 마케팅본부장 겸 동아B&M 대표를 맡고 있다.

제14회 중앙 의혈언론인상은 백준무(신문방송05) 세계일보 기자와 임재혁(공공인재 17) 동아일보 기자가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전달됐다.

특별상은 백선희(사회복지 87)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수상했다.

중언회는 이날 중앙대 언론고시반 '언필제'에 장학금 100만원도 전달했다.

행사는 이일환(신문방송 92) SBS 동문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세현 중앙대 총장, 민병철 중언회 후원회장, 이재원 라이프자산운용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진 기자 lhj@



지난 1일 충북 소노벨 단양에서 열린 '제5회 시멘트의 날' 기념식에서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쌍용C&E 이현준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실장, 엠태영 국회의원, 한국시멘트협회 전근식 회장, 김문군 단양군수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멘트협회

시멘트업계, '환경보국' 실현 다짐

'시멘트의 날' 기념식

시멘트업계가 '시멘트의 날'을 맞아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보국' 실현을 다짐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1일 충북 단양에 있는 소노벨 단양에서 시멘트업계 대표 등 업계 임직원, 관련 업종 단체장, 학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시멘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멘트업계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E 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혁신 ▲미래지향적 친환경 건설소재 구현 ▲탄소저감 기술 개발 가속화를 통한 기후변화 위기 선제적 대응 ▲자원순환사회 구축 선도 등을 다짐했다.

이날 선언문을 통해 ▲E 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혁신 ▲미래지향적 친환경 건설소재 구현 ▲탄소저감 기술 개발 가속화를 통한 기후변화 위기 선제적 대응 ▲자원순환사회 구축 선도 등을 다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카카오맵, 대구치맥페스티벌 지도 공개

부스·공연장 위치 한눈에 확인 가능

카카오맵이 대구치맥페스티벌 현장을 디지털로 구현한 전용 지도를 처음 선보이며 부스와 공연장, 실시간 현장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는 2일 위치 기반 라이프 플랫폼 품카카오맵에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

전용 지도를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다양한 치킨 브랜드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국내 대표 여름 축제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해에는 약 115만 명이 방문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오늘의 날씨

7월 3일 (금)
음력 : 5월 19일

수도권 날씨
21 ~ 3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15 | 해질 / 19:5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홈플러스 회생과 MBK 김병주의 책임



이정혁
西村브리핑

홈플러스 사태가 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7월3일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일이다. 서울회생법원은 그 직전인 지난 6월30일까지 홈플러스 측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일종의 최후 통첩 성격이다. 홈플러스 측이 가까스로 30일까지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법원이 요구한 2000억원의 외부 자금 조달안은 담기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메리츠는 절반인 1000억원에 대해서만 대출을 의결했다. 이마저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개인의 보증을 요구하면서 자금 조달안이 무산됐다.

법원의 자금 조달 계획안 제출 요구는 사실상 계획안이 안 나오면 회생 절차를 폐지하겠다는 신호다.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남은 길은 청산, 즉 파산 절차다. 그래서 자금이 채워지느냐 마느냐가 회사의 존속 여부와 직결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9월까지 2개

월의 추가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추가 연장이 이뤄지더라도 법원이 요구한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회생계획안 인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벼랑 끝에 서있는 홈플러스의 상황을 보면 본말이 전도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가 위기 상황인 데도 '아무리 짜빠야 나올 것이 없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은 혹여나 정부가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원도 홈플러스 직원 1만2000명을 그냥 거리에 내얹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속내 때문인지, 왜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와 김병주 회장은 채권자인 메리츠에게 추가 대출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책임 있는 자금 투입 계획을 내놓지 않을까.

메리츠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 채권자 역시 홈플러스의 회생이 가져올 사회적 의미와 경제적 파장을 의면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도 손익 계산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 회생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순서가 있다. 대주주가 먼저 회생 의지를 숫자로 증명하고, 그 다음 채권단이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대주주의 책임 있는 출연이나 확실한 보증 없이 채권자에게 추가 자금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채권단에 고통 분담을 요청할 수는 있다. 법원에 시간을 달라고 호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요구의 전제는 대주주의 선제적 회생이다. 자신은 제한적 부담만 지면서 타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무책임의 표본이자 대표적인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MBK 뒤에 물러나 있는 김병주 회장이 보이고 있는 자세도 문제다. MBK는 국내 대표 사모펀드이고, 김 회장은 그 상징적인 인물이다. 2025년 기준 '포브스' 발표를 보면 김 회장의 재산은 무려 14조 2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김 회장이 사채 출연이든, 개인 보증이든, 책임자본 투입이든 분명한 방식으로 먼저 움직이는 것이 첫 순서인데도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회생법원이나 상당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자금 조달 계획서가 아니다. 홈플러스를 살릴 의지와 능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명이다. 그 증명의 첫 줄에는 김병주 회장이 서야 한다.

회생 절차는 부실의 비용을 사회 전체에 나눠 떠넘기기 위한 장치 아니다. 기업을 살릴 가치가 있고, 그 기업을 책임질 주체가 명확할 때 작동해야 한다. 대주주가 책임을 회피하는 회생에 대해 국가나 채권단이 끌려 갈 수는 없다.

/ljh@metroseoul.co.kr

케이블 TV 생존을 위한 외침



이지수첩
조민선
(IT부)

공공성은 위기 상황의 방어 논리가 될 수 없다. 최근 케이블TV의 역할과 미래를 논하는 국회 세미나 장을 나오면서 든 생각이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공적 기능과 지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지역채널은 기초자치단체와 생활권 정보를 다루고, 중앙 방송이 미처 담지 못한 지방선거 후보 정보도 효과적으로 제공하므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역 공공미디어 서비스라는 포괄적인 틀을 만들어 재원과 거버넌스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장에서는 인터넷TV(IPTV)를 함께 운영하는 대기업 계열 사업자들이 지역 케이블TV

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모가 작은 SO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실제로, 케이블TV 시장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이미 10년 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곧 감소세인 데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은 매년 평균 1200억원 수준의 운영 비용을 지출한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 사업자 역시 유튜브와 OTT 중심의 시청 흐름 속에서 성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이 시장을 독점한다거나 케이블TV 시장이 어렵다는 말만으로 미래가 열리지는 않는다.

지역 케이블 TV가 다시 설득력을 얻으려면 지역민이 찾아볼 만한 콘텐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공공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이들에게 지원 체계가 새로운 출발일 수는 있어도 해답은 아니다. 시청자가 머물 이유를 만들지 못하면 공공성은 금세 설득

력을 잃는다.

케이블TV가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하려면 그 기능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해야 한다. 그다음은 어떤 기획 의도로,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답해야 한다.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생활권 문제를 파고들어 대중들이 반응하는 콘텐츠로 만들어야 한다.

TV를 켜고 지역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시청층부터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젊은 층들은 이미 OTT와 유튜브, 숏폼으로 이동했다. TV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에게 재난, 복지, 교통, 의료, 생활 행정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공적 기능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콘텐츠가 낡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케이블TV의 미래는 지원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공적 기능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더 중요하다. 공공성이 위기에 닥친 기업의 생존을 위한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

/msjo@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3일 (음 5월 1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매사에 더욱 더 조심하는 것이 길합니다. **60년생** 뜻밖의 행운이 굴러들어옵니다. **72년생**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84년생** 용기를 내어 추진해 보세요.
- 49년생** 여행을 계획중이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61년생** 일에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73년생** 길을 다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85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세요.
- 50년생** 반가운 손님이 귀하를 방문할것입니다. **62년생** 말 조심하고 건강에 신경을 쓰세요. **74년생** 중심을 잡고 일에 집중하세요. **86년생** 늘 올바른 자세로 매사에 임하세요.
- 51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합니다. **63년생**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세요. **75년생**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87년생** 부와 명예의 길로 힘차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 52년생** 성실한 자세로 계속 나아가면 더 큰 이득이 보입니다. **64년생** 금전운이 다소 불리합니다. **76년생** 오늘은 조용히 근신할 때입니다. **88년생** 유혹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 53년생** 유비무환이란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65년생** 괴롭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마세요. **77년생** 어려울 듯하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89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 54년생** 자신의 고집을 버려야 하는 일이 길합니다. **66년생** 신중히 나아가야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78년생** 현금은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90년생** 사면초가의 위기입니다.
- 55년생** 지금은 더욱 열심히 할 때입니다. **67년생** 낮 들고 기억 자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79년생**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식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91년생** 생식은 되도록 삼가세요.
- 56년생**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68년생** 재물을 다루는 일이 따를 수 있습니다. **80년생** 칭찬 또는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생각다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 57년생** 고집을 버리세요. **69년생** 바른 마음 가짐을 가지고 분수를 알고 행동하세요. **81년생**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93년생** 노력의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 58년생** 부채로 인해 어려운 시기입니다. **70년생** 혈압이나 스트레스를 특히 주의하세요. **82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가진 것을 갈 수하세요. **94년생**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59년생** 좋은 소식이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71년생** 방식을 바꾸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83년생** 귀하의 약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95년생** 가는 곳마다 사고가 기다리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김상회의四季 부부의 날

아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은 우리 국민에게 익숙한 법정기념일이다. 그런데 '부부의 날'은 익숙지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어린이날이나 아버지날에 비하면 부부의 날이 공식적으로 법정기념일이 된 것은 이제 이십 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은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제정추진위원회'가 부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서 2007년 5월 21일을 국가공인 법정기념일로 승격되었다고 한다. 본래 1995년 경상남도 창원에 살았던 권제도 교회 목사 부부가 부부의 화합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취지에서 제정했다. 부부간의 관계를 되새기고 화합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만든 기념일이라는데, 누군가는 기쁨이나 행사가 많은 5월에 굳이 부부의 날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하면서 생뚱맞아하는 모습도 보았다.

어린이날, 아버지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등 모두 5월이어서 생활비 측면 가장 부담스러운 달이기도 하지만 결혼기념일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성격의 이중과세가 아니냐며 그다지 즐거워하는 분위기가 아닌 듯하다. 특히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남녀도 많고 혹여 이혼한 부부들도 많았던 한국에서는 뭔가 쓸쓸한 날인지도 모르겠다. 부부기간은 그래도 가장 큰 의치이다. 명리학 고전인 적천수(滴天髓)에 부처인연속세래(夫妻姻緣宿世來)란 말이 있다. 부부가 되는 인연은 인위적이거나, 우연히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생에서부터 온다고 한 것이다. 독수공방 등등이 모두 전생에 정해진 각본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불가에서 말하는 부부인연은 칠천 겁의 인연이니 사랑 사십 리의 바위를 일 년에 한 번 선녀가 내려와서는 입고 있던 비단 옷깃으로 한 번씩 스쳐서 닳아 없어지는 시간을 일 겁이라고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1		2		3		9	
3					1		5	2
	8							
		6			3		2	4
1		5	9		4	6		8
4	7		3			5		
							3	
8	3		6					1
5		7		9			6	

6	9			4				5
	4	1						
	7				4	3	1	
8			6	4	9		2	
			8	7				
	4		9	7	3			6
1	5	8				3		
					1	5		
2		4			6		7	

할인도서

8	9	2	8	6	1	2	7	9
1	7	2	6	9	9	2	8	8
9	8	1	2	7	8	6	9	9
9	6	9	2	8	8	1	2	7
8	2	9	7	8	6	9	2	1
7	2	8	8	1	2	9	9	6
2	1	6	9	9	7	8	6	8
2	9	7	1	2	8	6	9	8
6	8	8	9	2	7	1	2	1

2	8	9	9	1	7	8	6	2
8	6	9	1	2	8	9	2	7
6	7	8	9	2	8	9	1	1
9	1	8	8	2	6	2	7	9
7	9	2	2	6	8	1	9	8
8	2	2	6	7	9	9	1	8
1	8	7	9	8	9	2	2	6
2	9	6	8	9	1	7	8	2
9	2	1	7	8	2	6	8	9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4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4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도멘 흐모리계의 본 로마네... 시간이 만든 부르고뉴의 향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34

포도밭은 파워와 웅장함으로 대변된다는데 와인은 우아한 향이 먼저 치고 들어오더니 부드러운 질감으로 여운을 남긴다. 음악으로 바꿔 말하면 힘찬 고전 교향곡을 여성 지휘자가 재해석해 부드럽고 깊은 여운으로 담아낸 식이다. 도멘 흐모리계(Domaine Remoriquet)의 '본 로마네 프리미에 크뤼 오 드슈 데 말콩소르(Au Dessus des Malconsorts)'다.

흐모리계는 부르고뉴에서도 낚새 조르주에 자리한 가족경영 와이너리다. 부르고뉴에선 소유한 포도밭에서 포도를 직접 재배해 양조하면 '도멘'으로, 매입한 포도로 와인을 만들면 '메종'으로 부른다. 흐모리계는 도멘이다. 낚새 조르주와 본 로마네에 걸쳐 10ha 안팎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다.



왼쪽부터 도멘 흐모리계 본 로마네 프리미에 크뤼 오 드슈 데 말콩소르의 2022, 2015, 2009, 2005 빈티지. /안상미 기자

도멘의 4세대인 질 흐모리계는 "유행이나 트렌드는 바뀌지만 흐모리계는 이전과 변함없이 각 테루아의 개성이 담긴 와인을 만든다"며 "테루아와 함께 해마다 다른 기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부르고뉴에서도 본 로마네 마을은 두

말할 나위 없는 피노누아의 최고 성지다. 천재가 태어날 때부터 달랐듯이 본 로마네 테루아도 태생이 그렇다.

흐모리계의 포도밭은 본 로마네의 14개 프리미에 크뤼 가운데 하나인 '오 드슈 데 말콩소르'에 위치한다. 말 그대로 말콩소르 위쪽(오 드슈 데) 사면으로 그랑 크뤼

인라타슈와 사실상 맞닿아 있다.

'도멘 흐모리계 본 로마네 프리미에 크뤼 오 드슈 데 말콩소르'는 와인명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있다. 도멘 흐모리계는 와이너리, 본 로마네는 위치한 마을이다. 프리미에 크뤼는 포도밭의 등급을, 마지막 오 드슈 데 말콩소르는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한 포도밭 구획을 뜻하는 끌리마의 이름이다.

개별 지역명이 낮은 이들을 위해 서울 부동산 지도에 대입해 풀어해보면 이렇다. 일단 본 로마네는 부르고뉴에서도 누구나 선망하니 강남이다. 가장 유명한 '로마네 콩티'를 압구정, '라 타슈'를 청담동이라고 한다면 '오 드슈 데 말콩소르'는 근접한 위치로나 명성으로나 반포쯤이라고 보면 된다.

흐모리계가 빈포 와인, 아니 오 드슈 데 말콩소르를 양조하는 방식은 전통 그대로다. 당도와 산도, 타닌이 균형을 이루는 최상의 수확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포도알 뿐만 아니라 껍질, 씨까지 모두 맛을 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온에서 발효해 향과 타닌을 부드럽게 추출한다. 잘 익은 줄기는 따로 보관했다가 해에 따라 구조

감이나 신선함을 주기 위해 첨가하기도 한다. 숙성에서는 10% 정도는 아카시아 배럴을 사용해 아로마가 더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와인을 빈티지별로 살펴보는 버티컬 테이스팅 시간이다. 시간의 마법을 느끼려면 최근부터 역순으로 올라가야 한다.

2022 빈티지는 뜨거웠던 해를 그대로 반영했다. 아직 생생한 과실미를 가지고 향도 타닌도 강렬하다. 미래가 기대되는 청년 시절 본 로마네다.

2015 빈티지는 빈티지 힘과 우아함의 균형점 위에 딱 위치했다. 과실과 꽃향, 미네랄이 촘촘한 타닌과 어우러졌다.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미래의 모습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상태다.

이제 시간이 빚어낸 부르고뉴의 향을 제대로 느껴볼 차례다.

2009년은 따뜻한 해였다. 포도가 충분히 익어 풍성하면서도 등글며, 시간 속에서 우아하게 숙성됐다. 초보와 린이라도 본 로마네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만한 빈티지다.

/smahn1@metroseoul.co.kr



metro

문화 단신

CGV·롯데시네마, 단독 개봉작으로 여름 공략

호러·애니·공연 실황 장르 확장
흥행 IP·특화관으로 관객 공략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이한 7월, 국내 극장가를 대표하는 멀티플렉스 CGV와 롯데시네마가 오직 자사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단독 개봉작' 카드를 꺼내 들고 정면 승부에 나선다. 극장 관객들의 파편화된 취향을 정교하게 잡기 위해 호러, 애니메이션, 콘서트 실황 등 다채로운 라인업을 구성해 관객몰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CGV, 장르 다각화로 승부

CGV는 월간 단독 입주작 시리즈인 '씨집에 가면'의 7월 라인업을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다. 스릴러와 애니메이션, 공연 실황을 아우르는 촘촘한 라인업이 특징이다. 1일 개봉한 블러디 액션 스릴러 '레디 오어 나트: 죽음의 숨바꼭질'과 8일 개봉하는 NEON의 신작 호러 '키퍼'가 무더위를 날릴 준비를 마쳤다. 특히 '키퍼'는 영화 '통레그스'의 오스굿 퍼킨스 감독과 '백룸' 제작진이 의기투합해 기대를 모은다.

인기 만화 원작의 '극장판 암살교실 모두의 시간'과 한국판 라이온 킹으로 불리는 뮤지컬 실황 '뮤지컬 푸른 사자 와니니'도 개봉했다.

로큰롤의 왕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설적 무대를 담은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콘서트'가 IMAX 포맷을 포함해 개봉하며, 그룹 NCT의 제노-재민 주연의 스포츠 성장 드라마 '와인드업: 더 무비'도 베일을 벗는다. 5일에는 일본 인기 밴드 '미세스 그



롯데시네마 7월 단독 개봉 루시픽 라인업.

/롯데시네마

린 애플'의 도쿄 스타디움 공연 실황을 단독 생중계한다.

◆흥행 IP '루시픽' & '광음시네마'

롯데시네마 역시 검증된 흥행 시리즈와 차별화된 음향 특화관을 무기로 맞붙을 예정이다. 단독 브랜드인 '루시픽'과 '광음시네마' 라인업으로 극장 관람의 매력을 극대화한다. 먼저, 일본 개봉 당시 6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극장판 도라에몽: 신 친구의 해저비밀성'이 1일 개봉했다. 시리즈 최초로 'SUPER·MX4D' 포맷을 도입해 오감 만족을 선사한다. 같은 날, '스크림', '서브스틴스' 등을 유쾌하게 비트 레전드 호러 코미디 '무서운 영화'도 상영을 시작했다.

22일에는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 90%를 기록하며 북미에서 화제를 모은 N

EON의 호러 영화 '호킴'이 국내 호러 팬들의 심장을 겨냥한다.

압도적인 사운드로 몰입감을 높이는 광음시네마에서는 8일 디즈니의 오션 어드벤처 '모아나'를, 29일에는 전 세계가 기다려온 블록버스터 '스파이더맨: BRAND NEW DAY'를 상영해 온몸으로 느끼는 거침없는 타격감과 스펙터클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관객들의 발걸음을 잡기 위한 멀티플렉스 간의 장의 경쟁이 뜨겁다. 대작 상영 외에도 각 극장만의 색깔을 담은 단독 개봉작과 특화관 라인업이 울림 극장가를 찾는 관객들에게 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웹툰 '유미의 세포들', 뮤지컬로 무대 확장

샘컴퍼니·스튜디오N 5년 공동기획
내달 23일까지 CJ토월극장 공연

글로벌 누적 조회수 35억 뷰를 기록한 네이버웹툰 '유미의 세포들'이 창작 뮤지컬로 관객과 만났다. 웹툰과 드라마를 넘어 무대로 확장된 '유미의 세포들'은 원작의 감성과 메시지를 새로운 공연 언어로 풀어내며 성공적인 초연의 막을 올렸다.

창작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첫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작품은 이동건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샘컴퍼니와 스튜디오N이 5년간 공동 기획·개발한 프로젝트다. 방대한 원작 서사를 약 160분으로 압축하면서도 유미의 내면과 세포들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개막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무대는 웹툰 특유의 상상력을 공연 예술로 구현한 점이 돋보인다. LED와 영상 기술을 활용해 유미의 머릿속 세포마음을

시각화했고, 개성 있는 의상과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세포 캐릭터들이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여기에 뮤지컬에서는 이례적으로 스크린 자막을 도입해 관객들이 넘버의 가사를 함께 음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미가 아닌 세포들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전지적 세포 시점'을 통해 원작의 핵심 메시지인 '내 삶의 주인공은 나'를 더욱 선명하게 전달한다.

배우들의 열연도 초연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유미 역의 티파니영과 김예원은 각기 다른 매력으로 캐릭터를 표현했으며, 원작에는 없는 오리지널 캐릭터 '109' 역의 최재림과 정택은 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사랑 세포 역의 김소향과 유리아 역시 유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이끌며 극의 감동을 더했다.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은 오는 8월 23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된다.

/신원선 기자



유미의 세포들 공연.



/샘컴퍼니

메트로 한줄뉴스



▲ 시진핑 "대만 독립 분열세력 타격해야"
/사진 뉴시스
▲ 외교부 "美 하원 법사위 보고서, 쿠랑 측 주장만 담아 유감"

▲ 트럼프, 지난해 '美 대통령' 브랜드로 22억 수익... 이해충돌 논란
▲ 이란, 카타르 회담 마무리... 美 면담 없이 중재국과 회의

▲ 트럼프, 임산부 입국금지 검토... '원정출산' 겨냥
▲ 워시 연준 의장, 트럼프 압박에도 "연준 독립성 변화 없을 것"



홈쇼핑 업계
방송 전 과정서
시로 효율혁신
L1



Life

뷰티기업
체험·B2B 등
해외거점 확대
L2



동근 길 따라 흐르는 풍경... 바쁜 일상서 마주한 '초록 심포'



자연·교육 등 갖춘 '녹색 학세권'
녹지 밀도 높은 자연친화적 조경
외관 디자인으로 럭셔리 품격 더해

주민 참여형 공간인 '단지 내 텃밭'
중앙광장 중심에 위치한 티하우스
석가산·수경시설 한눈에 볼 수 있어

계절 느낄 수 있는 프리드로우 가든
단지 내 풋살장 등 이색적인 공간도



아파트의 미학(美學)

신검단중앙역 디에트르 더 에듀

인천지하철 1호선 신검단중앙역 2번 출구를 나오면 검단신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역 주변으로는 새 아파트와 견본주택, 공사 중인 단지들이 눈에 띈다. 상가도 하나둘 채워져 신도시 생활권의 윤곽이 선명하다. 도로 맞은편으로는 산과 공원이 펼쳐진다.

역에서 걸어서 약 15분가량 이동하면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신검단중앙역 디에트르 더 에듀'가 나타난다. '신검단중앙역 디에트르 더 에듀'는 대방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공급한 아파트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11개 동, 총 781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59㎡와 84㎡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단지에 다다르면 '더 에듀'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와닿는다. 맞은편에는 인천검단가온중학교와 인천신검단초등학교가 보이고, 길 건너 검단가온고등학교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도보권에 모인 교육 특화 환경은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근린공원과 금정산 등 녹지가 더해져 '완성형 녹색 학세권'을 자랑한다.

뒤편으로는 고인돌공원과 맞닿아 있고 금정산, 평강천이 가깝다. 신도시 특유의 정돈된 도로와 새로 조성된 녹지, 단지 안 조경이 맞물리며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신검단중앙역이 개통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넉넉한 주차공간도 강점이다. 단지는 세대당 약 2.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입주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키즈룸,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교육과 여가, 생활 편의를 단지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검단신도시의 최근 교통망이 개선되고 새 아파트가 활발하게 입주하며 수도권 서북부의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역세권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단지는 문주부터 동 입구까지 회색 석재 마감에 브론즈톤 금속 포인트를 적용해 차별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활용했다.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반짝이는 금속 디자인이 주변 조경과 대비를 이루며 세련된 인상을 더한다.

단지 안쪽으로 들어서면 녹지의 밀도가 높아진다. 내부 조경에 그치지 않고 뛰어난 고인돌공원과 이어지는 구조를 갖췄다.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공원 산책길로 연결돼 숲과 잔디가 보이고 뒤편으로는 산자락이 펼쳐진다. 단지 안에서도 초록 풍경이 끊기지 않아 '공세권' 입지를 체감할 수 있다. 산들바람이 드나드는 동선은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완성한다.

단지 한편에는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인 육생비오톱을 만들어 다중구조 식재와 돌무더기, 나무더미를 조성했다. 매화나무, 목백합, 산수유, 소나무, 자작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만날 수 있다.

단지 내 텃밭은 입주 주민 참여형 공간으로 꾸며졌다. 주민들이 직접 작물을 관리하고 가꾸는 가드닝을 통해 이웃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한 친환경 커뮤니티 공간이다.

단지 중앙부에 자리한 'D 서클 위터 가든'은 '신검단중앙역 디에트르 더 에듀'의 핵심 조경이다. 중앙광장과 수경시설, 석가산, 티하우스, 산책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돼 단지를 걷는 동선 자체가 하나의 조경 체험이 된다. 동글게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물길과 정원, 휴게공간이 차례로 나타나 단조롭지 않다. 돌과 물, 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은 단지 안에 작은 연못과 계곡을 들여놓은 듯하다.

수경시설이 티하우스를 안고 있는 형태도 눈



- 1 단지 중앙부에 위치한 중앙광장과 연못으로 꾸민 수경시설.
- 2 중앙광장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티하우스.
- 3 단지 뒤편에 위치한 고인돌공원.
- 4 계곡을 담은 단지 내 수경시설.

/성채리 수습기자



에 띈다. 티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넓은 창으로 석가산과 물길이 한눈에 들어온다. 외부 테크와 테이블도 함께 조성돼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바람을 맞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조경 공간 설계에는 '디에트르 파사드'가 적용됐다. 2022년 굿디자인 어워드 공간·환경 디자인 부문에서 수상한 대방건설의 공동주택 입면 디자인이다. 디에트르 파사드의 사선 디자인은 열린 문틈에서 새어 나오는 빛을 모티브로 한다.

다양한 콘셉트로 구성된 정원은 친환경 조경의 완성도를 높인다. 프리드로우 가든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식재로 꾸며진 정원이다. 철쭉 등 색깔 있는 식물을 통해 단지 안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서클 가든은 원형

동선과 휴게공간을 중심으로 머무름에 초점을 맞췄고, 크로스 가든은 여러 보행 동선이 만나는 지점에 녹지와 휴식 기능을 더한 공간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공간은 풋살장이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보기 드문 시설로, 입주 주민들이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펜스로 둘러싸인 인조잔디 구장에는 골대와 농구대를 함께 설치했다.

어린이 놀이터는 밝은 색감과 입체적인 놀이 기구로 꾸며졌다. 별과 달을 모티브로 한 미끄럼틀, 터널형 기구 등을 배치했다. 지하 공간과 지상 정원을 연결하는 쉼터 구조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



▲ '월드컵 쇼크' 2개월 뒤 아시안게임...U-23 이 민성호에 시선
▲ 프로야구 두산, 다즈 카메론 후임으로 유니오 르 세베리노 영입 /사진 뉴시스

▲ 월드컵 美 대표팀, 보스니아에 2:0 승리...勝 주역 발로건은 '레드카드'
▲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선수 명단서 빠져...아틀레티코 마드리드 行 유력

▲ 남자배구 현대캐피탈, 아시아쿼터로 中 국가대표 출신 장추안 영입
▲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대표팀 확정...안세영, 역대 최초 단식 '2연패' 도전

SAMSUNG

함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2026. 06. 08 ~ 07. 05



구매금액
20%

제품 구매 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증정

소상공인과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동일 품목당 2대까지 신청 가능, 데이코, 허만, 소모품, 액세서리 등 일부 제품 제외
*이동통신사 구매 제품은 모델별 정액으로 지급 (모델별 지급금액은 삼성닷컴에서 확인)

K-Hero 혜택

30%

국민께 봉사하는 K-Hero 분들께 (군인 및 경찰·소방·교정공무원)
온누리상품권에 더해 10% 추가 혜택

*삼성전자 패밀리룸에서 대상 모델 구매금액의 10% 추가 혜택 (구독 제외)

구독료 지원 **6개월**

AI 구독클럽 6개월 구독료를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로 지원

*PC/Tab/모니터 4년, 로봇청소기 5년, 그 외 TV 및 가전품목 6년 가입 한정 (스마트폰 제외)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을 참조해주세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